

2020 국별 진출전략

필리핀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3
1. 개요	3
가. 시장 전망	3
나. 주요 경제지표	3
2. 2020년 주요 이슈 및 전망	4
가. 인프라 집중 개발 및 정부투자 기조 지속	4
나. 고인플레이, 폐소화 평가절하 장기화 등 변수 상존	5
다. 세제개혁 추가 도입	5
라. 미-중 무역전쟁 여파	6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7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7
가. 정치 환경	7
나. 경제 환경	7
다. 산업 환경	8
라. 정책·규제 환경	9
2. 시장 분석	11
가. 시장 특성	11
나. 교역	12
다. 투자진출	14
라. 건설·프로젝트	16
3.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19
가. 교역	19
나. 투자	22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23
III. 진출전략	25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25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6
3. 한-필리핀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32
4. 진출 시 유의사항	36
참 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37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39
3. 2020년도 KOTRA 주요 사업(잠정)	40
4. 2020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42
부 록	
對필리핀 K패키지(양국 간 상생협력방안)	43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1 개요

가. 시장 전망

2020년 경제성장, 현상유지 전망

- 주요 국제금융기구, 2019년과 2020년 6% 초반의 견고한 성장 전망
 - * ADB : 2019년 6.4% → 2020년 6.4%, IMF : 2019년 6.5% → 2020년 6.3%
- 가계소득 증가, 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경기 호황세 유지 여건 양호
 - 해외 근로자(OFW, Overseas Filipino Workers)의 달러 국내 송금 및 폐소화 약세로 가계 소득 확대(2018년 현재, 전 세계 OFW 2.3백만 명, 송금액은 322억 달러)
 - 2019년 하반기부터 대대적인 인프라 개발 등 정부 투자로 경기부양 활기 전망
 - 필리핀 무역수지 적자와 더불어 폐소화 약세, 미·중 무역 분쟁, 위안화 약세, 미국 경기침체 우려 등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상존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인구	백만 명	97.1	100.1	101.7	103.3	104.9	106.5	108.7	110.9
명목 GDP	십억 달러	250.1	284.1	292.3	304.5	312.7	335.5	356.68	389.05
1인당 명목GDP	달러	2,278	2,838	2,874	2,948	2,981	3,150	3,281	3,508
실질성장률	%	6.6	6.1	6.1	6.9	6.6	5.7	5.7	5.2
실업률	%	7.2	6.8	6.3	5.5	5.6	5.4	5.3	5.4
소비자물가상승률	%	3.5	4.2	1.4	1.8	3.0	2.2	3.3	3.1
재정수지(GDP대비)	%	0.6	-0.6	-0.9	-2.4	-2.7	-2.5	-2.1	-2.6
총수출	백만 달러	53,978	61,798	58,648	56,312	63,233	67,487	34,216*	N/A
(對韓 수출)	"	3,125	2,532	2,511	2,095	2,540	2,542	1,487*	N/A
총수입	"	61,831	64,523	66,686	80,833	92,841	108,927	53,117*	N/A
(對韓 수입)	"	4,799	5,042	4,336	5,301	8,073	11,162	4,306*	N/A
무역수지	백만 달러	-7,853	-2,725	-8,038	-24,521	-29,608	-41,440	-18,901	N/A
경상수지	"	11,380	10,760	7,270	-1,200	-2,160	-8,520	-7,850	-6,850
환율(연평균)	PHP/US\$	42.2	44.4	45.4	47.49	50.51	51.63	52.1	53.36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32	57	56	83	10	98	N/A	N/A

주 : *는 1~6월 누계, 2019년은 추정치이며 2020년은 전망치
 자료 : IMF, Global Trade Atlas, 필리핀 통계청(PSA)

2

2020년 주요 이슈 및 전망

2019년 중간선거와 예산안 통과 지연으로 인프라 개발이 늦어졌으나 2019년 하반기부터 투자 활성화 통한 경기 호황세 전망. 또한 해외 근로자(OFW) 해외 송금액 증가로 소비 확대, 특히 수입수요 확대가 기대됨. 하지만 폐소화 약세, 미국-중국 간 무역전쟁 장기화, 소비자 물가 상승 등 필리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도 상존

가. 인프라 집중 개발 및 정부투자 기조 지속



Build Build Build 정책* 지속 추진

- 도로, 공항·항만, 철도, 수처리, 교량 등 주요 분야 75개 프로젝트 우선 추진
 - 두테르테 정부는 2019년 5월 중간선거, 예산안 통과 지연 등으로 늦어진 인프라 개발 2019년 하반기와 2020년에 적극 추진 예정
 - 2019년 예산안 중 Build Build Build 프로젝트에 9,097조 페소 배정되었으며, 이는 전체 예산의 24%에 해당

Build Build Build 프로젝트 현황

- 필리핀 국가경제개발청(Neda, 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이 2019년 7월에 발표한 동 프로젝트 진행상황 검토자료에 따르면, 75개 플래그십 프로젝트 중 21개만이 2022년에 마칠 것으로 전망
 - 나머지 54개 프로젝트는 2022년 이후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두테르테 대통령 임기 내 사업을 시작할 예정
 - 2019년 중반, 46개 프로젝트(1조 6천억 페소)만 현재 진행 중인데, 그 중 9개는 공사 진행 중, 2개 종료, 6개는 엔지니어링 및 디자인 단계, 10개는 조달 단계, 12개는 파이낸싱 단계, 나머지 7개는 투자조정위원회(ICC, Investment Coordination Committee)에서 재검토 단계
- 자료 : 현지 언론 Inquirer(2019.10.16)



마라위(Marawi) 복원사업 시작

- 이슬람 반군세력과의 내전으로 파괴된 마라위(Marawi) 지역 재건 추진
 - 신규 주거지 및 인프라 건설에 11억 8,500만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며 호주, 미국, 일본, 중국 등 다수 국가가 ODA 지원* 약속
 - * 호주 : 19.4백만 달러, 미국 : 13.4백만 달러, 일본 : 1.8백만 달러, 중국 : 1.6백만 달러 등
 - 2019년 9월 필리핀 공공사업도로부(DPWH), 18.9km의 마라위 도로 재건 공사 시작

나. 고인플레이, 폐소화 평가절하 장기화 등 변수 상존

초인플레이션 지속 시 내수 진작에 부정적 영향 불가피

- 물가상승률이 가계소득 확대 효과를 상쇄할 경우 소비심리 위축 우려
 - 2019년 초부터 물가상승률 필리핀 중앙은행(BSP)의 목표치인 2~4% 내 달성하며 현재로서는 안정적인 물가상승률 유지
 - 태풍, 엘니뇨, 물 부족 등 자연재해로 인한 식료품 가격 인상, 에너지 가격을 비롯한 수입 물가 상승 등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 존재
 - * 2018년도 물가상승률은 필리핀 중앙은행(BSP)의 당초 예상치(4.5%)를 대폭 상회하는 6.4%를 기록하였으나, 2019년 5월 물가상승률 3.2% 아래를 기록하며 2018년 2월 이래 가장 낮은 수치

폐소화 가치 하락세로 수입물가 상승, 무역적자 심화 우려

- 수입의존도가 높은 필리핀에 폐소화 약세는 무역적자 심화 초래
 - 폐소화 약세는 원유, 소비재, 중간재 등의 수입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지출 부담 가중
 - 폐소화 약세가 수출에는 도움이 되나 통상 수입이 수출의 1.7~8배에 달하는 필리핀에는 악재로 작용하는 부분이 더 큼
 - * 필리핀 무역적자 추이 : 2016년 340억 7,900만 달러 → 2017년 371억 8,100만 달러 → 2018년 224억 9,000만 달러 → 2019년 7월 222억 9,500만 달러

다. 세제개혁 추가 도입

제2차 세제개혁법안(CITIRA) 도입 추진

* CITIRA : Corporate Income Tax and Incentives Rationalization Act

- 제1차 세제개혁법안(TRAIN Law)*에 이어 기업 관련 조세제도 변경이 주요 골자인 2차 법안 하원 통과(2019년 9월 13일)
 - 법인세 인하, 조세 인센티브 면제 혜택 등이 쟁점
 - * 2018.1.1. 도입된 세제개혁법안(TRAIN Law)은 개인소득세 인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축소, 유류세·자동차세·설탕세 등 특별소비세 적용 등이 주요 골자였으며, 특별세 도입으로 자동차 등 관련 제품 소비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19년 회복세
- 종합세제개편 프로그램(CTRP) 총 5단계 중 현재 2단계 진행 중
 - 2단계 중 세부적으로 3가지의 단계(① 법인세&인센티브, ② 담배&주류세, ③ 광산세)가 있으며 ① 법인세&인센티브 법안의 경우 상원 통과 진행 중

종합세제개편 프로그램(CTRP, Comprehensive Tax Reform Program)

단계	법안	내용
Package 1	TRAIN-The Tax Reform for Acceleration and Inclusion	특별소비세 개정방안
Package 1B	Tax Amnesty	신용불량자에게 장기미납 세금 납부 기회 제공
Package 2	Corporate Income Tax&Incentives	법인세 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
Package 2+	Sin Taxes&Mining Taxes	담배, 주류세 및 광산세 개혁
Package 3	Real Property Valuation	부동산 가치 기준 확립
Package 4	Passive Income and Financial Taxes Motor Vehicle Users Charge	수동적 소득, 경제, 거래에 대한 세제 개혁

자료 : 필리핀 재정부(Department of Finance)

라. 미-중 무역전쟁 여파

단기적으로는 필리핀에 긍정적 효과 기대

- 대상 품목(알루미늄, 철강, 태양광 패널 등)의 수출입량 미미해 큰 영향 없을 전망
 - － 오히려 중국산 대체수요로 필리핀산이 부각될 수 있어 수출 증대 효과 기대
 - － 미국, 중국과 무역협정*을 통해 이미 대다수의 상품에 0% 관세율 적용

* 미국과는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를 통해 3,500여 개의 제품이 0% 세율 적용, 중국과는 중-아세안 FTA로 90%에 달하는 제품에 0% 세율 적용

장기화 시에는 글로벌 경기위축에 따른 부정적 영향

- 미-중 무역마찰이 지속될 경우 세계 경제 전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필리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 전반적인 교역 감소로 필리핀 제품에 대한 수입 역시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수출 감소 및 무역적자 심화 우려

* 2019년 7월 기준, 미국은 필리핀의 제1위 수출국, 제4위 수입국이고, 중국은 필리핀의 제3위 수출국, 제1위 수입국



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2019년 예산안 통과 지연으로 예상보다 낮은 경제성장을 보였으며, 5월 중간선거로 두테르테 대통령의 지지기반이 강화됨에 따라 대통령 임기 말까지 정책 추진에 걸림돌 없을 것으로 전망. 제조, 건설, 서비스, 소매·유통 등의 산업 육성 정책 의지가 확고해 관련법을 재정비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유지, 법인세 인하 등의 세제개혁 정책 방향에 따라 경제활동 여건이 달라질 가능성 존재

가. 정치 환경

2019년 중간선거 결과 상·하원 내 두테르테 대통령 지지기반 강화

- 2019년 5월, 상원 12석*, 하원 297석에 달하는 의원 선출을 위한 중간선거 실시
 - 두테르테 지지 세력이 상·하원 장악함에 따라 대통령 임기 말까지 정책 추진력 얻을 것으로 전망
 - 두테르테 대통령의 세 자녀 모두 다바오 시에서 당선됨. 딸 사라 두테르테는 현 다바오 시장으로 재선에 성공하였으며, 차남 세바스찬 두테르테는 다바오 부시장에, 그리고 장남 파올로 두테르테는 하원의원에 당선
- * 필리핀 상원의원 의석수는 24석, 임기는 6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전국을 선거구로 해 35세 이상의 입후보자 중 최다 득표순으로 선출되며 3년마다 절반(12명)씩 교체되는 독특한 방식

나. 경제 환경

민간소비, 정부투자·지출 합동으로 성장 주도

- 해외 근로자(OFW) 송금, 소득세 인하를 발판으로 가처분소득 및 소비 증가
 - 필리핀 GDP의 약 10%를 차지하는 OFW의 달러화 벌이 증가 및 폐소화 약세로 가계별 가처분소득 및 내수 지속 확대
- 공공·민간부문 투자 확대로 인프라·건설·부동산 경기 활성화 낙관
 - 2019년 예산안 통과 지연으로 두테르테 대통령이 추진하는 'Build Build Build 프로젝트'가 상반기에는 지연되었으나, 2019년 하반기부터 경기부양을 위해 인프라 투자 재개 예정

- 대규모 인프라 개발을 위한 정부 및 민간투자 증가*로 건설업 및 관련 산업 호황 및 고용 창출 기대

* 2019년 상반기 기준 건설 부문 투자 90만 페소 기록(전년 동기 투자액은 72억 420만 페소, 자료 : 필리핀 통계청)

수입수요 지속 확대로 한국을 포함한 외국산 수입은 꾸준한 증가세

- o 최근 3개년간 수입액은 17%의 꾸준한 증가세 기록
 - 제조업에 필요한 원자재 및 소비재의 상당을 수입에 의존
 - 특히 최근 3개년 한국산 수입점유율이 눈에 띄게 증가, 2019년 7월 기준 9.45%로 중국, 일본에 이어 3위 수입국으로 부상
 - * 한국의 필리핀 수입 시장점유율 추이 : 2016년 6.6% → 2017년 8.7% → 2018년 10.3%

FDI는 증가 추세이나 각종 규제 및 세제개혁안으로 향후 전망은 불투명

- o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취약, 외국인 투자를 통해 제조업 부흥 모색
 - 지역별 투자유치기관 운영 및 인센티브 제공, 자동차를 비롯한 제조업 부흥정책* 도입 등 FDI를 제조업 기반 조성의 주요 방편으로 활용
 - * CARS(Comprehensive Automobile Resurgence Strategy) : 향후 6년간 한 모델 당 20만 대를 필리핀에서 제조하는 조건으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 Mitsubishi와 Toyota가 수혜
- o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유지, 조세 인센티브 축소 법안 도입은 악재
 - 두테르테 대통령이 주요 업종의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현행 40%) 완화를 언급한 바 있으나 실질적인 조치가 없는 상황
 - 법인세 인하 등을 내세운 제2차 세제개혁안에 외국인 투자 관련 인센티브 대폭 축소가 포함되어 우려 유발

다. 산업 환경

자동차·자동차부품

- o 2019년 상반기 완성차 판매량 전년 동기 대비 1.46% 증가한 172,337대 기록
 - 2018년 1월 1일부로 특별소비세가 적용되면서 판매량 감소했다가 서서히 회복세
 - 승용차 판매량은 6.4% 감소, SUV 42.9% 감소, 트럭 및 버스 42.2% 감소했으나, 경상용차(light commercial vehicles)의 판매는 23.1% 증가
- o 경기 호황에 따른 구매력 강화로 차량 소비 수요의 완만한 회복세 기대
 - 1억 700만 명에 달하는 거대 내수시장으로 특소세 여파가 어느 정도 반영된 이후 수요 회복세 예상

건설·인프라

- 인프라는 물론 적극적인 부양책에 따른 경기 활성화로 주거용·사무용 빌딩 등 건설·부동산 경기도 상승세 지속
 - 최소한 현 정부 말기인 2022년까지는 인프라 황금기*가 계속될 전망
 - * 두테르테 대통령이 2017년 'Build Build Build' 정책을 발표하며 향후 5년 동안 인프라 황금기(golden age of infrastructure)로 만들 것이라 선언. 75개의 대형사업(flagship projects)에 1,680억 달러 투자, 200만 명 고용창출을 목표

소매·유통

- 2019년 기준 필리핀의 소매·유통 시장은 500억 달러 추정
 - 편의점, 슈퍼마켓, 대형 쇼핑몰 등의 오프라인 매장이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거나 온라인 유통 시장의 점유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
- 소매업 매출의 97%는 오프라인 점포를 통해 발생하나 온라인 유통 시장도 급격한 성장세
 - SM, Robinson, Rustans 등 현지기업이 개발한 쇼핑몰이 소매·유통의 구심점
 - 인터넷 속도 향상, 모바일 인구 증가로 인터넷·모바일 쇼핑 매출 역시 급성장
 - * 2018년 전자상거래 규모는 8억 4,000만 달러로 추정, 2022년까지 연평균 12%의 견고한 성장세 기대 (자료 : www.statista.com)

여행·관광 서비스

- 2018년 기준 여행·관광 산업의 GDP 기여도는 12.7%, 540만 명 고용
 - 2019년 5월까지의 필리핀 방문 외국인 수는 34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6% 증가
 - 이 중 한국인 방문객이 78만 9,000명, 22.6%의 비중으로 1위 기록
- 관광객 수 증가에 비해 숙박, 레저시설은 개선 여지 다대
 - 인근 동남아 국가 대비 불편한 항공노선, 관광객 수 대비 숙박시설 부족, 조악한 레저시설 등의 분야에서 보완을 위한 사업기회 모색 가능
 - 호텔 등의 숙박시설은 물론 쇼핑몰, 레저·오락시설, 공항·철도 등 관광 인프라에 대한 투자로 관광대국으로 등극 도모

라. 정책·규제 환경

2017~2019년 외국인 투자유치 우선분야 선정

- 정부 차원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FDI 유치 우선분야(IPP)*를 선정, 해당 부문 투자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Investment Priority Plan으로 통칭되며 통상 3년 단위로 업데이트하여 선정

** 2019년 10월 현재, IPP 2020 미발표

○ 2017년 선정된 분야는 다음과 같음

- 제조업 : 농수산물 가공식품, 부품 제조업 등
- 서비스업 : 집적회로 설계, 항공장비 유지·보수, 대체에너지, 산업폐기물 처리, 유무선 통신 산업, 엔지니어링, 조달·건설, 마약 재활치료시설 설립·운영 등
- 신기술 : 혁신기술, 환경·기후변화 관련 기술 등
- 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축소

○ FIT(Feed-In-Tariff) 조정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 축소 여파 확산

- 관련 업계의 신규 투자 중단*은 물론 인근 국가로 사업 이전 및 이에 따른 고용 악화 우려 증가

* 필리핀 대표 에너지기업인 First Gen사의 경우 9건의 신규 사업 잠정 중단



제2차 세제개혁법안(CITIRA) 도입 추진

* CITIRA : Corporate Income Tax and Incentives Rationalization Act

○ 2019년 9월 10일, 필리핀 하원 포괄적 세제개혁(CTRP) 2단계인 법인세·세제 우대 적정화 법안(CITIRA) 최종 심의 통과, 추후 상원에서 심사 예정

○ 제2차 세제개혁법안(CITIRA)는 이하의 내용을 골자로 함

- 법인세율을 2029년까지 현재 30%에서 20%로 매년 1%씩 점진적 인하
-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최초 10년간 인센티브 수혜가 가능하며, 추가 요건 충족 시 추가로 9년간 인센티브 수혜가 가능
- 소득세 면제 기간(Income Tax Holiday) 이후 기업은 2020년 18%에서 2030년 13%까지 감소되는 특별 감소 소득세율을 적용
- 기업은 특별 감소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대신 인건비, 직원 교육비, R&D 비용, 설비투자비용 등의 분야에서 감면 가능
- 기존 기업들의 경우 Sunset 기간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이 끝나면 기업은 제2차 세제개혁 법안의 인센티브를 수혜 가능
- 기존보다 간소화된 투자기관 등록 절차 등

* 본 내용은 아직 초안 단계에 있으며 법안의 내용은 변동 가능

2 시장 분석

필리핀은 빈부 격차, 산업별 편차, 수도권 집중 등 여러 면에서 양극화가 뚜렷한 시장. 민간소비가 GDP의 70%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내수 위주의 경제이자 공급자 중심 시장 구조. 주요 교역국은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및 아세안(ASEAN) 회원국이며 제조업 기반이 취약, 소비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 최근 5년간 6%대 성장률로 호황기를 구가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아세안 시장의 관문으로 전략적 가치가 높은 지역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가. 시장 특성

거대 내수시장으로 성장 잠재력은 크지만 소득 양극화가 심한 시장

- 민간소비 비중이 GDP 대비 70%선으로 소비 잠재력이 높은 시장
 - 1억 명이 넘는 인구를 보유한데다 경기호황에 따른 가계소득 증가* 및 중산층의 성장으로 소비활동이 왕성해지는 추세
 - * GDP의 약 10%를 차지하는 해외 근로자(OFW, Overseas Filipino Workers)의 국내 송금이 중요한 역할 담당
- 극심한 빈부 격차로 소득 양극화가 심해 중하위층의 소득 증가가 절실
 -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필리핀의 소득별 계층을 A등급(최상위층)부터 E등급(최하위층)까지 총 다섯 단계로 구분 시, A등급(9.5%), B등급(6.2%), C등급(13.4%), D등급(31.3%), E등급(39.6%)
 - 중상위층은 전체 인구의 15.7%를 차지하는 반면, 중하위층은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70.9%를 차지하며 극심한 빈부 격차
 - 두테르테 대통령이 2016년 10월 제시한 ‘국가비전 2040(Ambisyon Natin 2040)’으로 2040년까지 중고소득국 진입, 빈곤 없는 중산층 사회 건설을 위한 중장기적 목표 설정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추진 중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공급자 중심의 시장

- 제조업 기반이 취약, 공산품은 물론 소비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
- 소수 대기업이 제품 유통을 장악하는 등 시장 지배력이 높아 경쟁이 제한적
 - SM, Robinson, Rustans 등 대형 유통기업이 시장 가격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급자 우위 시장구조

가공무역으로 제조업 기반 조성

-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원부자재를 수입해 필리핀 현지 공장에서 생산한 완제품을 인근 국가로 수출하며 경제 활성화에 기여
 - －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분야 등에서 외국인 투자유치가 중요한 역할 수행
- * 미쓰비시(Mitsubishi) : 포드(Ford)의 필리핀 생산공장 인수(2014년), Toyota : 1,126만 달러 규모 공장 증설(2015년), 삼성전자 : 2.5억 달러의 생산라인 증설(2015~2016년), SFA 반도체 : 필리핀 2공장(SSP) 준공 완료(2018년) 등

나. 교역

수출입 동향

최근 3년간 필리핀 수출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연번	국가	2017		2018		2019(1~7월)		2019/2018 증감률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전 세계	36,598	51,233	38,744	61,234	40,390	62,684	4.25	2.37
1	중국	3,883	9,238	4,862	11,847	5,484	13,999	12.79	18.17
2	일본	6,305	6,155	5,506	6,184	6,080	5,926	10.43	-4.18
3	한국	1,502	4,190	1,387	6,256	1,758	5,100	26.67	-18.47
4	미국	5,393	3,966	5,934	4,460	6,668	4,543	12.37	1.87
5	태국	1,491	3,690	1,581	4,354	1,736	3,873	9.76	-11.06
6	인도네시아	375	3,111	453	3,530	519	3,825	14.46	8.36
7	싱가포르	2,225	3,307	2,499	3,576	2,171	3,779	-13.11	5.67
8	말레이시아	868	1,935	1,084	2,222	992	2,810	-8.44	26.43
9	대만	1,311	2,577	1,453	3,187	1,337	2,615	-7.99	-17.95
10	베트남	476	1,438	505	1,583	760	2,191	50.51	38.42

자료 : Global Trade Atlas(수입금액 기준 순위)

- (수출) 2017년, 2018년에 이어 꾸준한 증가세*
 - － 2019년 7월 현재 전년 동기 대비 4.26% 증가세 기록
 - － 주요 수출국은 미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한국 등이며 대(對)한국 수출은 7월 기준 17억 5,87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6.67% 증가
- (수입) 최근 3년간 평균 12%대의 꾸준한 증가세로 수입수요 확대를 방증
 - － 2019년 7월 기준 수입은 626억 8,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37% 증가
 - * 2017년 : 512억 3,300만 달러(14.85% ↑), 2018년 : 612억 3,400만 달러(17.33% ↑)
 - － 주요 수입국은 중국, 일본, 한국, 미국, 태국 등*이며 7월 기준 한국산 수입이 51억 달러, 수입 점유율 8.14%로 3위를 차지
 - * 5대 수입대상국별 점유율 : 중국(22.3%), 일본(9.5%), 한국(8.1%), 미국(7.3%), 태국(6.2%)

주요 수출입 품목

- (수출) 주요 품목은 전자집적회로, 자동자료처리 기계 및 단위기기, 절연 전선 및 케이블,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및 관련 반도체 디바이스, 수송용 선박 등
 - － 특히 전자 및 반도체의 경우 다국적 전자회사*가 다수 진출, 반제품 및 완제품 제조·수출이 주를 이룸
 - *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I), 삼성전자, 산요(Sanyo), 인텔(Intel) 등
- (수입) 주요 품목은 전자집적회로, 석유류, 승용차, 토탄(석탄의 일종), 전자 사무용 기기 부품, 구리광, 항공기 등
 - － 필리핀의 산업구조를 반영*하듯 전자, 반도체 제조를 위한 중간재 수입이 높은 비중 차지
 - － 그 외 광물연료 수입과 기계, 철강 등 자본재 수입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
 - * 전체 수출의 70% 이상을 전자, 반도체가 차지, 다국적기업 중심
- (한국산 수입) 주요 품목은 전자부품, 광물성 연료, 수송기계, 비철금속제품, 정밀화학제품, 철강제품 등
 - － 소위 13대 주력품목*의 수입 비중이 70% 상회한다는 점이 특이사항
 - *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섬유류, 철강제품, 일반기계, 자동차, 자동차부품, 선박류,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가정용 전자제품,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진입장벽

- (수입규제) 필리핀은 원칙적으로 상품 수입이 자유로운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 채택
 - － 공식적으로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나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 축산업에 대해서는 고관세율 적용, 쿼터 도입을 비롯한 다양한 보호주의 조치* 시행
 - * 수입 쌀 세이프가드 정책으로 인한 고세율(35%) 부과, 시멘트에 세이프가드 조치 적용해 2019년에 10페소/40kg, 2020년에 9페소/40kg, 2021년에는 8페소/40kg 부과 예정
 - － 아래 제품은 공공법 650조(Republic Act No. 650)에 따라 수입 쿼터가 지정되어 있어 정부로부터 수입할당을 받은 특정업체만 수입면허를 받을 수 있음
 - * 쌀, 밀, 통조림 생선, 정어리, 오징어, 고등어, 청어, 연어, 통조림 우유, 소고기 통조림, 콘드비프, 냉동 소고기, 교과서, 종이, 펄프
- (비관세장벽)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주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
 - － 최근까지 한국산을 포함한 봉강(Steel Angle Bar), 신문용지, 판지제품 등에 세이프가드가 적용
 - － 이 중 신문용지, 봉강은 세이프가드 조치가 해제된 반면 판지제품(testliner board)은 2020년 6월 20일까지 연장

- (불투명한 행정관행)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투명하고 일관성이 결여된 행정 처리는 수출 기업들의 주 애로사항
 - 식품·화장품 등 현지 식약청(FDA)에 제품 등록이 필수인 경우 장시간 소요
 - 통관 기간이 규정보다 오래 걸리니 관세 환급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등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

다. 투자진출

투자진출 동향

- 필리핀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2017년 87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나, 2018년에는 필리핀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80억 달러에 훨씬 못 미치는 64억 4,600만 달러로 감소(자료 : UNCTAD)
 - 2018년 미국 금리 인상과 필리핀 조세 인센티브 축소 우려 등으로 인하여 외국기업들의 투자가 급감한 것으로 분석
- (2019년 동향) 2019년 FDI 실적은 지속적으로 감소세이며 2019년 상반기는 전년 동기 대비 38.8% 감소한 36억 달러 기록(자료 : 필리핀 중앙은행)
 - 현재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외국기업에 대한 조세 인센티브를 축소하는 조세개혁안의 시행 여부에 따라 FDI 실적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 존재

주요 투자분야 및 경쟁 동향

- (투자분야) 제조업 투자가 46%에 육박하며 절대적 비중 차지
 - 금융·보험, 부동산 개발, 전기·가스 부문, 예술·레저·엔터테인먼트 순으로 외국인 순 직접 투자 유입
 - * 분야별 순 투자액 비중 : 제조업 47.7%, 금융·보험 14.5%, 부동산 개발 13.0%, 전기·가스 8.5%, 예술·레저·엔터테인먼트 8.3%
- (경쟁 동향) 싱가포르, 홍콩, 일본, 중국, 미국, 대만, 네덜란드가 주요 투자국
 - * 2018년 주요국별 순 투자액 : 싱가포르(9억 3,562만 달러, 41.2%), 홍콩(2억 7,019만 달러, 11.9%), 일본(2억 1,891만 달러, 9.6%), 중국(1억 9,868만 달러, 8.7%), 미국(1억 6,043만 달러, 7.1%), 대만(1억 5,505만 달러, 6.8%), 네덜란드(1억 2,082만 달러, 5.3%)
 - 싱가포르는 2018년 대(對)필리핀 순 투자액 1위, 3년간 누적 1위(총 16억 7,982만 달러)
 - 2019년 1~7월까지 누적 순 외국인 직접투자액 순위 1위국은 중국(1억 달러)이며, 미국(9,697만 달러), 싱가포르(7,130만 달러), 한국(7,081만 달러)이 그 뒤를 이음(자료 : 필리핀 중앙은행)
 - 일본의 경우 대(對)필리핀 순 투자액(Net FDI)이 2018년 2억 1,891만 달러였으나 2019년 1~7월 순 투자액 2,300만 달러

한국 투자 동향

- 2017년과 2018년 각각 1,302만 달러, 4,846만 달러를 기록하며 대(對)필리핀 순 투자액 증가
- 2018년 한국의 대(對)필리핀 순 투자액은 4,846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 세계 국가 중에서 11위를 차지하였으며, 2019년 1~7월 누적 순 투자액 7,081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 세계 국가 중 4위를 차지

진입장벽

- 외국인 투자제한 조항은 외국인 투자의 최대 걸림돌
 - 종합투자법(Omnibus Investment Code of 1987)에 따라 외국인 투자지분 참여가 40%로 제한되었으나 1991년 외국인 투자법(Foreign Investment Act of 1991, RA7042) 제정을 통해 외국인 100% 직접투자가 이론적으로는 허용
 - 그러나 주요 업종을 이른바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에 포함, 외국인 투자 참여에 여전히 제한을 두고 자국 산업·기업 보호 등에 활용
- 업종별 외국인 지분을 상향을 검토 중이나 실현 여부는 미지수
 - 두테르테 정부는 FDI 유치 확대를 위해 지분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이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여 실현 불가능

성공·실패사례

투자진출 성공사례

- 자동차 와이어링 하네스 제작업체인 A사는 기존에 중국에 제조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했으나, 중국 지역의 급격한 임금 상승과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하여 동남아시아 지역에 제조공장 이전을 검토함
- 공장 이전 모색을 위해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여러 후보 지역을 한국에서 조사하였고, 베트남과 필리핀 중에서 공장 설립 지역을 결정하기로 하고 KOTRA의 도움을 받아 현지 조사를 실시
- A사는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베트남 지역을 유력 후보로 두었으나, 베트남 지역 역시 최근 급격한 임금 상승과 인력수급 가능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필리핀 지역으로 진출 결정
- A사는 KOTRA 한투센터 담당직원으로부터 법인 설립 과정과 현지 공장 설립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정보를 받음. 또한 필리핀 경제자유구역청(PEZA)으로부터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유력 후보 지역을 소개받아 마닐라항과 가까운 경제특구인 카비테(Cavite) 지역에 공장을 설립
- 최근 약 300여 명의 필리핀 현지인을 채용하여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하였으며 매우 순조롭게 공장 운영 중

투자진출 실패사례

- B사는 그랩이나 우버와 같은 공유자동차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로, 한국과 싱가포르에서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
- B사는 필리핀 도로교통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반면 현지의 자동차 수요는 많은 점에 착안하여, 공유자동차 플랫폼 사업이 매우 유망하다고 판단, 몇 개월 동안 필리핀 교통 시장 조사를 시작
- 그러나 필리핀의 대중교통 사업(택시 포함)에 대하여 자국 산업의 보호 및 공공성을 위하여 외국인의 지분을 최대 40%까지만 허용. 공유자동차 플랫폼 사업은 외국인이 투자하기에는 지분 제한 문제로 인하여 경영권 확보가 되지 않는 문제 발생. 더욱이 최근 다른 외국기업들 역시 공유자동차 플랫폼 관련 필리핀에 진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필리핀 도로교통부(LTRB)에서 추가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 공유자동차 플랫폼 기업들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어 진출에 난항

라. 건설·프로젝트

추진 방향

- (정부투자 확대) 두테르테 정부는 아키노(Aquino) 전 정부와 유사하게 민관협동(Public Private Partnership : PPP) 방식으로 대규모 인프라 개발 모색
 - 그러나 2017년 중반 이후 소위 'Hybrid PPP'*가 키워드로 부상하면서 정부투자 및 지출을 확대
 - * Hybrid PPP : 인프라 건설은 정부가 직접 입찰을 진행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되 이후 O&M(Operation & Maintenance) 등은 PPP로 추진하는 형태
- (ODA 활용) 수요 대비 재원 부족 상황 타개를 위해 일본, 중국 등으로부터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적극 유치
 - * 일본 지원 메트로마닐라 지하철 건설, 중국 지원 칼리와담(Kaliwa Dam) 건설 등

시장 동향

- (Build Build Build 정책) 두테르테 정부가 출범한 2016년부터 5년간 1,680억 달러의 재원을 투입, 75개 인프라 사업 추진(자료 : ADB news)
 - 도로, 철도·지하철, 공항·항만, 교량, 수자원 개발 등을 총망라한 대형사업 추진 중
 - 또한 인프라 개발에 따른 건설업 경기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데, 2019년 5월 공공사업도로부(DPWH) 장관 마크 빌라(Mark Villar)는 동 프로그램으로 2016년 이래 4백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발표(자료 : 현지 언론 Manila Bulletin)
- (민간투자 활기) 5년간 총 1,680억 달러의 재원이 투입될 건설 시장 호황에 민간투자도 중요한 역할 담당
 - 사무용·주거용 빌딩은 물론 쇼핑몰, 관광·레저시설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 확대

- 특히 마닐라 북부에 위치한 클락 지역의 신도시 개발(New Clark City)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다수의 현지·외국기업들이 담당기관(BCDA)과 합작 혹은 협력을 통한 사업 선점에 주력

경쟁 동향

- (현지기업 강세) 아얌라(Ayala Land Inc.), 산미구엘(San Miguel Corporation)을 필두로 경쟁력을 갖춘 현지 건설사 다수 포진
 - 그 외에도 건설면허 최고 등급을 획득한 건설·부동산 전문기업* 다수가 외국기업과 합작·컨소시엄을 통해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 중
 - * 산타클라라(Sta. Clara), 엠디씨(MDC), 메가월드(Megaworld), 디엠씨아이(DMCI), 데이텀(Datam), 엠피아이씨(MPIC), 메가와이드(Megawide) 등
- (한국기업 진출) 현대건설, 대림, 포스코, 한진중공업, 수자원공사, GS건설, 코레일 등이 현지 기업과 협력을 통해 사업 수주*, 진출
 - 2017년 한국기업이 필리핀에서 수주한 건설 프로젝트 규모는 3억 6,700만 달러로 해외 수주액 기준 국가별 순위에서 17위를 차지
 - 건설 분야 외국기업 진출 제한으로 직접 사업 수주는 사실상 불가능, 주로 현지 건설 대기업의 하청이나 ODA 프로젝트, 필리핀 정부로부터 특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추진
 - * GS건설 : 푸에르토 프린세사 공항, 한진중공업 : 블라칸 용수공급 사업, 코레일 : MRT 7호선 설계·자문, 대림 : 페트론(Petron) 정유공장, 포스코 : JG Summit 나프타크래킹 설비 등

진입장벽

- (건설면허) 건설공사 수행에 필수요건인 건설면허 취득 시 분야에 따라 외국인 지분 제한 적용, 외국기업의 사업 수주에 장애물로 작용
 - 이론적으로는 100% 지분 소유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우리기업이 수주할 수 있는 공사 대부분의 경우 지분이 40% 이하로 제한됨
- (외국인 토지소유 제한) 외국인 토지소유는 불가하며 장기 임대만 가능
 - 토지소유가 가능한 현지기업의 경우 사업 추진 시 해당 부지·부동산의 가치 증대 가능성을 반영하여 저가 입찰이 가능, 사업 수주 가능성이 높아져 외국기업 입장에서는 경쟁에서 절대적으로 불리

시사점

- (현지기업과의 협력이 관건) 건설공사 수행에 필수요건인 건설면허 취득 시 분야에 따라 외국인 지분 제한 적용, 외국기업의 사업 수주에 장애물로 작용

- 따라서 현지기업*과의 합작,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한 시장 진출이 현실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사업능력과 신뢰성을 보유한 현지기업 물색이 중요
 - * 산타클라라(Sta. Clara), 엠디씨(MDC), 메가월드(Megaworld), 디엠씨아이(DMCI), 데이텀(Datam), 엠피아씨(MPIC), 메가와이드(Megawide) 등
- (EDCF 사업 적극 활용) 해당 사업의 경우 조건부 융자(tied-loan)*로 우리기업의 참여가 우선시
 - 필리핀 정부가 부족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외국 정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어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제공 기반은 조성된 상황
 - * 지원국이 자금을 공여하는 대신 일정 비율의 자금이 자국 기업 혹은 제품 구매·결제에 쓰이도록 하는 방식
- (외국 정부 공적개발원조 사업 참여 제고) 해당 국가 기업이 참여·조달 불가능한 공사·설비·서비스·기술의 경우 제3국 기업 참여 가능
 - 일본, 중국 등 ODA 제공국의 원청업체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킹 구축이 필요

가. 교역



한-필리핀 교역 동향

- (2018년 동향) 한-필리핀 총 교역액 156억 달러 기록
 - － 전체 교역량은 전년 동기 대비 9.16% 상승, 필리핀은 한국의 교역대상국 중 수출 8위, 수입 28위를 차지
 - － 수출 120.4억 달러(13.6%↑), 수입 35.7억 달러(3.6%↓), 무역수지는 84.7억 달러 흑자로 전년 동기 대비 22.9% 증가
 - － 지난 2년 연속 수출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대(對)필리핀 수출액이 100억 달러로 가장 높았던 2014년 수치를 초과
- (2019년 동향) 7월 기준 총 교역액은 74.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5% 감소
 - － 수출 51억 5,700만 달러(24.3%↓), 수입 22억 5,800만 달러(15.3%↑), 무역수지는 28억 9,900만 달러 흑자
 - － 필리핀은 한국 교역대상국 중 수출 11위, 수입 26위로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감소했으며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증가



주요 수출입 품목

- (수출품목) 2019년 7월 기준 수출 상위품목은 반도체, 석유제품, 동제품, 자동차, 합성수지 등
 - － 무기류에서 기록적인 수출 증가세를 기록한 반면, 주력품목인 반도체, 동제품, 자동차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감소세*를 기록
 - * 2018.1.1.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적용되면서 신차 시장수요는 물론 한국산 수입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
 - － 13대 주력품목의 수출 비중이 70%를 상회, 중소·중견기업 수출 확대 필요

2019년 한국의 대(對)필리핀 상위 10위 수출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순번	코드	품목명	2018		2019.7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12,037	13.6	5,157	-24.3
1	831	반도체	5,509	29.2	1,886	-40.4
2	133	석유제품	2,130	45.9	1,090	1.7
3	622	동제품	310	3.4	153	-21.4
4	741	자동차	355	-15.3	131	-26.5
5	214	합성수지	144	17.0	76	-3.6
6	310	플라스틱 제품	146	13.6	69	-13.5
7	833	수동부품	97	-58.0	69	12.8
8	834	기구부품	112	-11.4	66	-5.6
9	813	컴퓨터	112	39.2	64	-2.4
10	970	무기류	9	19.2	59	1365.6

자료 : 한국무역협회(MTI 3단위 기준)

- (수입품목) 2019년 7월 기준 수입 상위품목은 반도체, 곡실류, 컴퓨터, 동제품, 수동부품 등
- － 곡실류, 산업용 전자기기 등에서 상당한 감소세 기록, 전체 수입 축소에 기여

2019년 한국의 대(對)필리핀 상위 10위 수입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순번	코드	품목명	2018		2019.7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3,569	-3.6	2,258	15.3
1	831	반도체	1,175	12.8	1,049	106.4
2	011	곡실류	350	-3	190	-18.2
3	813	컴퓨터	127	28.7	98	28.5
4	622	동제품	165	-61	97	-9
5	833	수동부품	151	-32.8	88	-4.6
6	131	원유	72	-30.2	63	-13.1
7	441	의류	112	11.7	62	-8.1
8	842	산업용 전자기기	197	6.5	62	-43.6
9	834	기구부품	85	3.4	55	8.2
10	015	기호식품	93	41.7	51	8.2

자료 : 한국무역협회(MTI 3단위 기준)

수출 성공사례

- 중고 건설장비 수출전문업체인 A사는 오랫동안 건설사, 혹은 관련 장비업체와 비즈니스를 진행한 경험을 토대로 신속한 제품 물색과 다양한 종류의 매물 공급이 가능한 경쟁력을 갖추었으나 마땅한 현지 딜러를 발굴하지 못해 필리핀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
- 수출기회 모색을 위해 현지 중고 건설장비 취급업체 발굴에 나섰으나 온라인상으로는 한계가 있는데다가 당시 엔저 현상까지 겹치면서 대부분의 수입업체들이 일본기업을 선호하게 되어 A사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는 등 상황은 악화됨
- 결국 A사는 경제특구인 수빅(Subic) 지역에 중고 건설장비 업체들이 밀집되어 있다는 정보를 토대로 입찰 현장을 직접 방문키로 결정, 다수의 수입도매상들과 미팅을 통해 바이어 후보감 물색에 나설 수 있었음
- 이때 발굴한 바이어들과 신뢰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는데 노력을 기울인 결과, 바이어의 방한 출장 시 가격협상 끝에 첫 거래가 성사되었으며 이후 신규 바이어도 소개받아 추가 거래선 확보에 성공
- A사의 성공비결은 막연히 온라인 포털 검색을 통한 바이어 발굴에 의존하지 않고 제품과 딜러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장 방문, 즉 발품을 팔아 현지 업체들과 신뢰를 쌓았다는 점. A사 관계자는 “발품을 팔면서 직접 만나서 방식이 전화통화 100번 이상의 효과가 있었으며 바이어와의 신뢰를 쌓는 데에도 훨씬 수월했다”고 강조
- 신규 주택 건설, 정부 주도의 인프라 개발 추진 등 필리핀 건설 시장 활성화가 기대됨에 따라 중고 건설장비 관련 수요 전망도 밝아 A사의 수출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수출 실패사례(현지 독점권에 대한 이해 부족 사례)

- 현지 업체에 냉온수기를 수출한 국내 업체가 현지 업체에 조건부 독점권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독점권 제한 요건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아, 현지 업체가 불명확한 계약 내용을 빌미로 지속적인 독점권을 행사함으로써 국내 업체의 현지 진출이 곤란을 겪은 사례
- 수년 전 국내의 대표적인 냉온수기 전문 업체가 자사 브랜드의 사용권한을 현지 업체에 부여하면서 취급 가능 제품 모델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고, 독점권 취소에 대한 처리 방법 등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상태로 몇 년간 거래 관계를 유지함
- 이후 국내 업체의 내부 여건상 자회사 성격의 협력업체에 브랜드 사용권한을 제공하면서, 협력업체와 취급 모델을 분리함. 이 과정에서 현지 업체와의 거래가 줄어들면서 거래 규모에 불만을 갖고 일방적인 거래 종단을 통보함. 결국 브랜드의 원소유권이 있는 업체의 협력업체가 현지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동일 브랜드를 사용하는 현지 업체가 영업권을 침해당했다며, 해당 국내 업체의 현지 진출에 이의를 제기
- 국내 업체는 모기업의 브랜드 보유업체에 확인한 결과, 현지 업체와의 거래 관계가 중단됨에 따라 독점권 사용 권한도 함께 종료됐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응함. 그러나 현지 업체는 독점권 사용권 중단에 대해 공식적인 서면으로 통보 받은 바 없고, 현지 업체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유선 통보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으며, 수년째 해당 브랜드를 바탕으로 영업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국내 업체가 진출하게 되면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분쟁 발생
- 결과적으로 현지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 국내 업체가 진출계획을 철회함에 따라 사태는 일단락됨. 그러나 현지 업체에 대해 독점권을 부여할 경우, 향후 거래선 전환 및 진출전략 재설정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제한 조건 및 독점권 회수 절차에 대해 숙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 주는 사례

시사점

- (철저한 사전 준비) 시장 동향, 가격동향, 바이어 성향, 상거래 관습, 관련 규제·법령 등 진출 전 관련 정보 분석 및 숙지는 필수
 - － 시장 동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인 수치 및 분석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 현지 사정을 잘 알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중요
 - － 특히 한국제품의 경우 전반적으로 품질에 대한 평가가 좋은 반면 가격이 비싼 것으로 인식, 경쟁제품과의 면밀한 비교·분석을 통한 가격책정이 관건
- (소량 주문에 대한 거부감 금물) 필리핀의 경우 소비재는 물론 중간재·자본재에 이르기까지 초기 거래에서는 최소 주문량(MOQ)에 해당하는 소량 주문이 대부분
 - － 대기업도 예외가 아니며, 이에 대해 실망하거나 거부감을 느낄 경우 계약 성사가 어려울 수 있음
- (법·규정 존중 및 인내심이 관건) 법적 테두리 속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비즈니스를 한다는 자세가 바람직
 - － 선진국과 비교 시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인 행정 관행, 관공서·업체에 만연한 부정부패 등의 이슈로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사업 추진이 어려움
 - － 단기적 성과를 위해 법·규정을 피해갈 수는 있으나 결국 역효과가 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므로 가급적 정석을 통한 시장 진출 모색을 권장

나. 투자

한국기업 투자진출 동향

- (2018년 동향) 한국의 대(對)필리핀 투자는 신규법인 47개사, 투자액 1억 7,300만 달러 시현
 - － 법인 설립 기준 14위, 투자액 기준 33위로 전자는 전년 대비 상승, 후자는 하락
- (2019년 동향) 2019년 상반기 기준의 경우 투자액 8,400만 달러*로 한국 해외투자(299억 8,200만 달러)의 0.28% 차지
 - － 주 투자분야는 건설업(4,800만 달러), 제조업(1,800만 달러),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900만 달러), 부동산업(600만 달러) 등(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시사점

- 현지 법령·법규에 대한 철저한 이해 선행 필요
 - － 필리핀 정부는 외국인 투자법 부록(Philippine Foreign Investment Act, Negative List)을 통해 외국인 투자 분야를 제한. 다소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조사 및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에 맞는 적법하고 합리적인 진출방식을 선택

* 예를 들어 은행의 경우 외국인 지분이 100% 허용되나 소매업의 경우 대규모 투자(250만 달러 이상)가 아닌 경우 허용 가능한 외국인 지분은 0%

- 결국 합법적인 방식을 통한 투자진출이 바람직
 -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등의 장애물 해결방식으로 더미(dummy)*를 활용하는 경우가 상당수이나 이 경우 경영권 분쟁의 불씨를 키우는 셈
 - * 현지인을 서류상의 소유권자로 내세워 사업체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외국인 투자지분이 제한된 업종에서 사실상 많이 활용
 -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지 상황과 다른 투자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해 합법적인 방식과 절차로 투자하는 것을 권장
- 조세 인센티브 조정 등 관련 법령·법규 개정에 대비한 진출방안 모색 필요
 - 정부 세수 부족으로 인하여 현재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체계 개선 및 각종 세제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 향후 법령 개정 및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 필요
 - 주 필리핀 외국상공회의소 연합을 비롯한 재계에서 우려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으나 2019년 연중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축소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신재생에너지 협력

- 한-필리핀 정부,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MOU 체결
 - 두테르테 대통령의 한국 방문 시(2018년 6월) 양국 에너지 부처 간 협력 의지 표명
- 국제기구, 다자개발은행과의 공동사업을 통한 진출기회 모색
 - ADB(Asia Development Bank), Sustainable Energy For All* 등 개도국 지역에 대한 에너지 공급 및 접근성 확대, 에너지 효율 제고,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정책 추진
 - * UN 산하 국제기구
- 공적개발원조(ODA) 시범사업 추진으로 관련 기업 참여기회 제공
 - 7,000여 개의 섬으로 구성된 필리핀의 경우 지리적 특성으로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이 다수
 - 필리핀 정부나 민간 재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충분히 건설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중소형 발전소 건설 지원 필요

※ 비제이파워, 필리핀 코브라도섬 분산형 전원 실증사업 수주

- 오프그리드(Off-grid) 도서지역 디젤 발전기에 신재생에너지를 연계, 분산형 전원* 구축
 - * 기존 송배전망 및 15kW급 디젤발전기 + 30kW급 태양광 + ESS
- ADB와의 공동사업으로 우리기업의 실증 경험 축적 계기 마련

인프라 개발사업 지원

- EDCF 자금 지원을 통한 필 정부의 인프라 개발정책 지원
 - － 두테르테 대통령 방한 시(2018년 6월) 세부 신항만 건설사업 차관 제공 협정 체결
 - － 우리기업의 사업 수주는 물론 한국 정부 차원의 인프라 개발 지원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철도, 항공, 도로 등 주요 인프라 사업의 우리기업 참여 확대
 - － 민다나오 철도(Mindanao Railways), 메트로마닐라 지하철, 지방 공항 및 NAIA 대체공항 건설사업, 메트로마닐라 대중교통정보관리센터 등

마라위(Marawi) 복원사업 지원

- 이슬람 반군세력과의 내전으로 파괴된 마라위(Marawi) 지역 재건에 필요한 재정 지원 및 사업 참여
 - － 신규 주거지 및 인프라 건설에 11억 8,500만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며 호주, 미국, 일본, 중국 등 다수 국가가 ODA 지원 예정
 - * 호주 : 19.4백만 달러, 미국 : 13.4백만 달러, 일본 : 1.8백만 달러, 중국 : 1.6백만 달러 등

방산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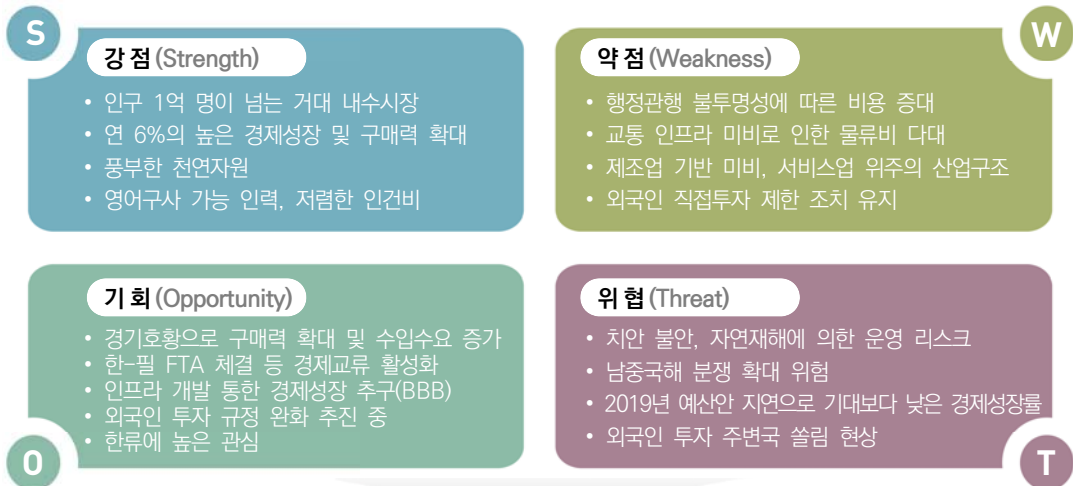
- 국내외 안보 및 영토 이슈로 군 전력 강화 필요성 대두
 - － 필리핀군 보유 방산물자가 노후화되었고 주변국과의 영토분쟁 및 이슬람 반군세력에 대비하여 전력증강을 위한 신무기 구매 적극 추진
 - － 아키노 정부, 2013년 필리핀군의 현대화를 위해 군 현대화 프로그램(Armed Forces of the Philippines Modernization Program) 발표
 - * Horizon 1, 2, 3의 세단계로 구성되며 아키노 임기 중 Horizon 1을 마무리하고 현재 두테르테 정부 하에 Horizon 2 진행 중
 - * 두테르테 대통령, 임기 내 우선 구매할 품목을 정하고 57.6억 달러 예산 승인
- 한-필리핀은 1994년 군사 분야 협력 위한 양해각서 체결 이후 긴밀한 방산협력관계 유지
 - － 한-필리핀 군수방산협력 양해각서(1994년), 한-필리핀 특정 방산물자 조달에 관한 시행약정(2009년), 군사협력 양해각서(2013년),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2015년) 등 양국 간 방산협력 위한 법적토대 마련
 - － 한국군의 무기체계와 장비들은 가성비와 신뢰도가 높아 필리핀군과 경찰들에게 좋은 평가
 - * 2015년 FA-50PH 12대, 상륙돌격장갑차(AAV) 8대, 2016년 초계함(PCC) 2척 수출 계약

Ⅲ. 진출전략

내수시장 점유 확대, 틈새수요 선점, 한류 활용 소비재 진출, 현지기업과의 협력, 경험 이슈 적극 활용 등을 통해 생산기지뿐만 아닌 소비기지로서 필리핀 진출 강화 전략 필요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필리핀 시장 SWOT 분석>



전략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 한류 마케팅 및 중산층 공략 통한 소비재 진출 - 필 정부의 인프라 개발 정책 적극 활용	한류 기반 소비재, 프랜차이즈 진출 강화
ST 전략 (강점 활용)	- 방산물자 수출 등 G2G 협력 확대 - 동남아 진출을 위한 제조업 생산기지로 공략	제조업, 방산 등 경험 의제 적극 활용
WO 전략 (기회 포착)	- 필 정부의 투자유치 희망분야 제조업 진출 - 한-ASEAN FTA 활용 가격경쟁력 강화	정책, 규정 변화에 따른 틈새수요 공략
WT 전략 (위험 대응)	- 현지 유력기업과 협력해 운영 리스크 감소 - 글로벌 경제 환경과 국내 정책 변화 모니터링	현지기업과 협력 진출 강화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1. 중산층 공약을 통한 소비재, 프랜차이즈 진출 강화 및 한류 마케팅 수혜품목 시장진출 공고화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고성장의 결실로 구매력 및 소비심리 확산
- 제조업 기반 미흡, 수입 소비재에 대한 높은 의존도, 외국 문화·상품에 친숙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재 시장 진출 확대의 적기
- 한류 확산으로 한국제품에 대한 이미지 및 선호도에 긍정적인 영향, 시장점유 확대 가능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경기호황에 힘입어 ‘보다 나은 삶’에 대한 관심 증가
 - － 중상위 소득층을 중심으로 건강한 먹거리, 양질의 소비재 구매의사 확대
 - * 유기농·건강식품, 각종 헬스케어·뷰티제품, 근거리 의료시설 및 의약품 등
- 소득 증가로 외국 수입제품 구매 능력 확대
 - － 과거 대비 가격보다는 품질에 보다 비중을 둘 수 있는 소비자 수 증가
- 한류 효과로 한국 및 한국제품에 대한 친근감과 인지도가 지속적으로 개선
 - － 특히 K-Pop, K-Drama 열풍으로 한국식 화장, 패션에 대한 호기심이 제품 구매로까지 이어짐
 - － K-Beauty, K-Fashion 관련 제품 도입에 현지 수입업체·유통업체들도 적극적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중상위 소득계층을 겨냥한 가격경쟁력 있는 제품 공급 필요
 - － 한국제품의 경우 어느 정도 품질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점을 감안, 해당 소비층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가격 책정이 관건
- 현지 유통망 장악 대기업은 물론 전문 벤더 집중 공략 필요
 - － 대형 유통망일수록 직접 구매 대신 전문 벤더를 통해 제품을 공급받으므로 이들 벤더와의 관계 확립은 기본
 - － SM, Robinson, Rustans 등에서 한국 식품, 화장품, 주방·가정용품으로 구성된 콘셉트 스토어, 판촉전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례 증가
 - － 소매유통법상 외국기업의 단독 진출이 어렵고 현지 유통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절대적인 점을 감안, 이들 기업과의 협업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
- 오프라인의 대안으로 부상한 온라인 유통·홈쇼핑 채널 활용

- 현지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오프라인 시장에 비해 온라인 유통망(Lazada, Zalora, Shopee, CJ O Shopping 등)은 진입장벽이 낮아 대안으로 부상
- 스마트폰 보급률 확대, 인터넷 환경 개선으로 향후 온라인·모바일 쇼핑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으로 특히 초기 진출단계의 기업에게 비용 면에서 유리
- 화장품을 비롯한 뷰티제품, 식품, 가전, 의류·액세서리 등의 시장 진출 유망
 - 단, 식품 및 화장품 등 가장 유망한 제품군의 경우 현지 식약청(FDA : Food&Drug Administration)에 제품 등록이 필수이므로 관련 사항 숙지 필요
- 적절한 현지 파트너 발굴을 통한 프랜차이즈 진출도 유망
 - 향후 꾸준한 시장 확대가 예상되고 한류 스타 영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외식 분야, 프리미엄 서비스로 포지셔닝이 가능한 헤어·스킨케어 등의 부문에서 프랜차이즈 진출 확대 추진
 - * 두레주르, 미스터피자, 교촌치킨, BBQ 등 외식 브랜드와 더페이스샵 등 화장품이 마스터 프랜차이즈 형태로 진출

2-2. 인프라, 방산, ODA 등 양국 경험 의제를 활용한 진출 모색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인프라, 방산, ODA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간 경제협력 수요 발생
- 제조업 기반이 약한 필리핀에서 인프라, 방산, 건설 등 기술력이 필요로 하는 부문에 관련 기업들의 참여 필요하며 가격 및 기술경쟁력으로 관련 시장 우위 확보 가능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양국 정상 상호 방문을 통해 인프라, 방산, ODA 등에서 경제협력 이슈 대두
 - 교통, 철도, ITS, 에너지 등의 다양한 인프라 부문에서의 한국기업 참여 제고를 통한 노하우 공유, 한국 정부 자금 지원(EDCF) 등이 협의됨
 - 두테르테 대통령의 한국 방문(2018년 6월) 시 세부 신항만 건설사업 차관 제공 협정 체결
- 특히 지정학적 요인으로 필리핀 내 방산물자 수요가 증가, 향후 한국제품·설비 추가 납품의 좋은 기회로 작용
 - 필리핀군 보유 방산물자가 노후화되었고 주변국과의 영토분쟁 및 이슬람 반군세력에 대비하여 전력증강을 위한 신무기 구매 적극 추진
 - 아키노 정부가 2013년 필리핀군의 현대화를 위해 발표한 군 현대화 프로그램(Armed Forces of the Philippines Modernization Program) 이후 필리핀군 한국산 방산물자(전투기, 장갑차, 초계함 등)에 지속적인 관심 표명

- 무상원조의 경우 우리 정부에 EDCF 자금 추가 배정 및 지원 프로젝트 확대 기대
 - － 현재 자금 지원이 확정된 세부 실행만 건설 사업 외 추가 프로젝트 발굴 가능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정부·기업·기관이 협업하여 인프라, 건설, ODA 프로젝트 수주 및 성과 창출 도모
 - － 상대국가와 정부·기업·기관 레벨에서 다양한 경제협력 플랫폼 구축
 - － 순방·방한 시 체결된 MOU 및 합의내용 관련 분야의 비즈니스 진출 기회 모색
 - － 외국 정부 ODA 프로젝트 지원기관과 협력하여 해당 기관 주도 사업에 참여 확대
- 필리핀 산업 정책 연계, 친환경, 에너지, 스마트기술 등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사업(PPP) 진출 유망
 - － (해외) PPP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무역관 중심 네트워크 구축
 - － (국내) 해외 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업종별 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프로젝트 수주 및 파생수요에 따른 수출 확대 도모
- 방산물자,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 전력증강을 위한 신무기 구매 적극 추진 중
 - － 한국군의 무기체계와 장비들은 가성비와 신뢰도가 높아 필리핀군과 경찰들에게 좋은 평가
 - * 2015년 FA-50PH 12대, 상륙돌격장갑차(AAV) 8대, 2016년 초계함(PCC) 2척 수출 계약
 - * 2017년 삼양컴텍, 필리핀과 1,600여 억 원 규모의 방탄복, 방탄헬멧 계약 체결
 - * 2019년 한화시스템, 필리핀 해군에 300억 원 규모의 함정 전투체계 공급 계약 체결

2-3. 정책·규정 변화에 따른 틈새수요, 신규수요 공략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전력, 환경, 교통,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책 변화로 수요 발생
- 대부분 현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제품·기술로 초기 수요 선점이 향후 관련 시장에서의 우위 확보에 결정적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친환경, 고효율 추구를 위한 정책 및 법규 제·개정* 움직임 확산에 따른 신규·틈새수요 발생
 - － 에너지, 환경, 교통, 수자원 개발 등 주로 인프라 분야에서 발생
 - * 발전설비 진단법, 물 관리법, 쓰레기 소각 금지법, 대중교통차량 현대화 등
- 두테르테 정부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프라 프로젝트인 ‘Build Build Build’ 사업을 통한 필리핀 진출 유망

- 2019년 예산안 통과 지연으로 인프라에 배정된 예산(9097억 페소, 약 173억 달러) 투입이 지연됨에 따라 금년 많은 프로젝트들이 시행되지 못했으나, 두테르테 대통령의 임기 말인 2022년까지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
- 최근 중국의 인프라·건설 시장 진출 및 원조 확대를 통한 다양한 사업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중국기업들과도 경쟁 치열
 - * BBB 프로젝트의 주요 기반시설 사업으로는, 수빅(Subic)-클락(Clark) 철도 건설, 남북 철도 사업(로스 바뇨스(Los Banos), 라구나(Laguna), 투투반(Tutuban), 마닐라(Manila), 클락(Clark), 팜팡가 자유 무역항 (Pampanga Freeport) 등을 연결), 클락 팜팡가(Clark, Pampanga) 1500헥타르 산업단지 개발, 클락 국 제공항의 확장 등
- 건설·인프라·부동산 개발 부문에서의 현지기업 시장지배력은 높은 상황
 - 외국기업 지분 제한, 토지 소유 제한 등의 진입장벽의 결과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우리기업이 전문성 및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가 다수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한 기회 선점 필요
 - 발전·송배전 설비, 발전설비 설비·솔루션, 상하수도 기자재, waste-to-energy 설비, 차량 안전운행 및 승객 편의 증진 설비·기기* 등이 유망
 - *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속도제어장치, Wifi, 자동 요금징수 시스템 등
 - 정책 도입 추이 및 현황을 면밀히 확인·검토하는 한편 관련 부처, 협력 필요성이 있는 현지 기관·기업과의 긴밀한 네트워킹 구축 중요
- 건설면허 취득, 인프라 부지 확보 등의 주요 장애물 제거를 위해서는 현지기업과의 협력 구축이 매우 중요
 - 현지 업체와의 합작,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시장 진출이 효과적이고 일반적이며, 사업능력 및 정부와의 네트워킹이 좋은 기업과의 협력관계 구축이 관건
 - 또한, 필리핀은 여전히 인적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지에 아직 도입되지 않은 첨단 기술력을 동원 시 진출 성공 가능성 높아질 것으로 전망
- 한국의 EDCF를 비롯한 외국 정부 제공 ODA 사업기회가 확대되는 추세인 만큼 이에 대한 참여방안 강구 필요
 - ODA 지원국 업체들에게 우선권이 있으나 이들이 수행하지 못하는 공사나 조달 불가능한 제품·설비 부문은 우리기업에게도 열려 있음을 인식, 필리핀에서의 우수 경험이 있는 제3국 기업들과의 네트워킹도 도움이 될 수 있음

2-4. 현지기업 강점 보유 분야 협력 강화로 진출 기반 확대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제조업에 취약한 필리핀, 건설·부동산 개발, 소매유통, BPO 등의 핵심 산업에서는 높은 경쟁력 보유
-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부흥정책을 추진 중이며 특히 우수 외국 제조업체의 투자유치에 적극적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영어 구사 근로자, 아세안(ASEAN) 주변국 대비 저렴하고 안정적인 인건비로 인해 BPO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사업 분야 우리기업의 진출 확대
 - 필리핀 최대 은행인 BDO 유니뱅크에 따르면 BPO 산업의 필리핀 GDP 기여도가 약 1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BPO 산업은 주로 마닐라, 세부, 다바오 등 대도시 위주로 발달해있으며, 모기업 소재지와와의 시차로 인해 보통 2~3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편의점, 음식배달 등의 수요도 함께 증가
- 제조업 부흥정책*을 통한 고용 창출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모색
 - 취약한 제조기반 확충을 위해 인센티브 제공 등 외국 제조기업 유치에 적극적

* CARS(Comprehensive Automotive Resurgence Strategy) : 6년간 한 모델당 20만 대 이상 현지 생산하는 조건으로 90억 페소(1억 7천만 달러 선)의 세제혜택 제공. 도요타, 미쓰비시 참여
- 외국·외투기업, 생산비 절감을 위해 현지 조달 확대 움직임
 - AEC(ASEAN Economic Community) 출범 이후 역내 부품·설비 조달이 유리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특히 BPO 산업은 외국인 지분을 최대 100%까지 허용하기 때문에 타 산업 대비 우리기업들의 진출이 자유로움
 - 영어권 국가의 이점을 살려 전화영어, 화상영어 등 영어교육 서비스 진출 용이
- 현재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산업을 발전을 위해 필리핀 정부에서 CARS 등과 같은 정책을 추진 중이며, 관련 법 정비 중
 - 현지 생산·조립 자동차에 대해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CARS와 같은 혜택을 받아 한국의 자동차 관련 업체가 진출한다면, 필리핀 내 한국산 자동차 시장점유율도 높이고 ASEAN 내 역내 국가로의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
- 투자진출을 통한 아세안 생산 네트워크 진입 모색
 - 한-아세안 교역의 가장 큰 특징은 수출에서의 중간재 비중이 높다는 점으로 이는 한-아세안 생산 네트워크 강화를 의미
 - 아세안은 저비용, 고성장 시장으로 국가별 투자가 활발하며, 특히 한·중·일 간 경합도 치열

* 한·중·일의 아세안 투자 추이(억 달러, 2007년 → 2017년) : 한(24 → 39), 중(21 → 82), 일(87 → 96)

3 한-필리핀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3-1. ODA, 공동사업 등 여러 기회를 통한 인프라·건설·에너지 분야 진출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두테르테 대통령 한국 방문 시 다양한 인프라 부문에서의 협력 의지 천명
 - * 교통, 철도, ITS, 에너지, 물 관리 등
- 필 정부, 인프라 개발을 통한 경제성장은 물론 신규 고용 창출에 적극적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우리 정부는 자금지원, 필 정부는 한국기업 참여 독려를 통한 상호 협력 제고
 - 두테르테 대통령의 한국 방문 시(2018년 6월) 세부 신행만 건설사업 차관 제공 협정 체결
 - 주요 인프라 사업(철도, 항공, 도로·교통 등)*에 대한 우리기업 참여 확대
 - * 민다나오 철도(Mindanao Railways), 메트로마닐라 지하철, 지방 공항 및 NAVA 대체공항 건설 사업, 메트로 마닐라 대중교통정보관리센터 등
- 한국이 강점을 보유한 에너지·전력 분야 노하우 지원
 - 지리적 여건 및 투자 부족으로 전력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지원 기대

진출전략

- 공적개발원조(ODA)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우리기업 참여기회 제공
 - EDCF 자금 투입이 확대될수록 우리기업의 비즈니스 기회 증가하나 자금 투입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기업의 기술 및 노하우가 두드러지는 분야 우선 지원 필요
 - 에너지 분야의 경우 중소형 신재생에너지 단지(예 : 태양광) 건설을 통한 경험 의지 확인으로 향후 우리기업의 진출 지원
- 국제기구, 다자개발은행과의 공동사업을 통한 진출기회 모색
 - UN, ADB 등에서도 추진하는 개도국 지역 에너지 공급 및 접근성 확대 사업을 활용, 시장 진출을 꾀할 수 있음
- 건설·인프라 시공, 설계·디자인·감리 등의 서비스 외에 다양한 분야 제품·설비* 수출 가능성 타진 필요
 - * 예 : 철도 차량, 신호체계 설비, 태양광 모듈·패널, 스마트그리드 관련 기술·설비, ITS 등

3-2. 양국 정부기관 및 관련 기업 연계 통한 방산 분야 진출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2013년 아키노 대통령 시절부터 3단계에 걸친 군 현대화 프로그램을 통해 노후화된 군 장비 교체 및 신규 도입 추진
 - * Horizon 1 : 2013~2017년, Horizon 2 : 2018~2022년, Horizon 3 : 2023~2027년
- 남중국해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 고조와 국지적 반군사태 발생으로 인해 방산물자 수요 증대
 - * 2012~2016년 필리핀의 방산물자 수입국 순위에서 한국은 미국,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3위를 차지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필리핀군의 전력 강화를 목표로 2013년부터 15년간 군 현대화 프로그램 시행
 - 2018년 필리핀 의회는 5억 달러 규모의 군 장비 교체 및 도입 계획 발표
 - * Armed Forces of the Philippines Modernization Program
-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의 긴장 고조, 마라위(Marawi) 반군에 대한 경계태세 강화로 장비 현대화 및 신규 장비 도입이 절실, 이에 따른 방산물자 구매 확대
- 자국 내 방산산업 기반이 취약, 각종 무기·장비·물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
 - 주요 수입대상국은 필리핀과 군사 분야 MOU 혹은 협약을 체결한 국가들
 - * 한국과는 1993년 방산분야협력에 관한 MOU 체결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신뢰할 수 있는 현지 업체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현지 수요 파악 및 방산 관계기관·관계자와 네트워크 구축
 - 외국기업의 직접 공급은 불가능하고 현지 업체를 통해야 하므로 경험이 풍부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현지 업체 발굴은 필수
- 두테르테 대통령, Horizon 2 기간 중 57.6억 달러 규모의 우선 구매품목 승인
 - * 육군 : 155mm 곡사포, 무장 구난차량, 지상 기동장비
 - 공군 : 대공감시 레이더 시스템, 항공용 무기 및 탄약, 중화물 수송헬기
 - 해군 : 수륙양용 공격차량, 대잠 헬리콥터, 소형 구축함
 - 반테러 방지, 재난구호 등 : 방호 시스템, 정보인식 시스템, 구급차량, 의료차량, 수상차량 등

3-3. 양국 핵심 산업에서의 인력교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모색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경기호황의 결실이 실제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지에 따라 두테르테 정부의 경제적 성과 결정
 - 필 정부는 대규모 인프라 개발에 따른 건설경기 호황으로 2백만 개 일자리 창출 기대
- 현지 인력이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서의 외국 인력 수요 증가
 - 고기술력을 요하는 업종일수록 현지에서는 인력 발굴이 어려워 외국 기술 인력 수요 발생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한 필리핀이지만 인력난을 겪는 분야 상존
 - 건설·인프라 개발 붐으로 인력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당장 필리핀 인력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분야*에 외국 인력 유치 검토
 - * 예 : 필리핀 기술교육훈련청(TESDA) 선정 14개 분야 102개 직업군
- IT 등 한국이 우위를 점한 분야 인력교류 수요 및 역량 강화 지원 수요 꾸준
 -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등 사업 지원 시 필요 내역에 교육훈련 및 역량 강화 요청 빈번
 - *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진출전략

- 양국 핵심 산업에서의 인력교류 활성화 사업 추진
 - ICT, 건설·인프라, 보건·의료, 농업 부문 등 양국 주요 산업에서 인력교류 정례화 모색
 - 한국 우수 기술 인력의 필리핀 파견 사업을 검토해볼만 하나 이 경우 양국 간 임금 격차가 크다는 점을 분야 선정 및 인력 선발에 반영

4

진출 시 유의사항

대금 결제 지연에 유의	외국인 투자제한 리스트 확인
■ (현황) - 기존 거래 경험이 있는 기업일지라도 현지 바이어가 특별한 사유 없이 결제금액 납부를 지연시키는 사례 발생 ■ (대응전략) ☞ 필리핀 바이어 특성상 문제가 생긴 경우 상대방의 연락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신용장 활용, 계약서상 결제금액 납부기한 명시 등 법적으로 제시 가능한 근거서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 (현황) - 필리핀은 자국민의 사업권 보호를 위해 1991년부터 외국인 투자 제한 리스트(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를 만들어 발표 ■ (대응전략) ☞ 원칙상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분야는 외국인 지분을 100% 허용하나 업종별 관련법에 따라 제한하는 분야도 있으므로, 진출 전 필리핀기업 등록 및 감독 위원회(SEC)에 확인 필요
무역사기 조심	행정관행 비효율성에 따른 비용 증대
■ (현황) - 현지 사업자등록증 및 계약서를 위조하고 필리핀 기업을 사칭해 물류비 혹은 물품비 횡령 시도 사례 종종 발생 ■ (대응전략) ☞ 회사 유선번호 및 회사 계정 이메일이 아닌 개인 번호·이메일을 사용하는 경우 의심해볼 필요가 있으며, 실제 거래 시 제품 구매 비용을 완납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것을 명심.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입금 시 영업일 기준 3~5일이 소요되므로 입금 후 충분한 시일을 갖고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심 가는 경우 무역관을 통해 바이어 확인 요청 필요	■ (현황) - 전산 시스템이 미비하고 여러 부서를 방문해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인증이나 서류 발급 시 상당 기간 소요 ■ (대응전략) ☞ 가급적 구비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 가는 것이 최선이며 해당 정부기관 방문 전 사전 문의도 문제 요소를 줄이는 방법. 2019년 7월 시행된 Ease of Doing Business Act는 정부 부서의 서류 발급 기간을 3일, 7일, 20일로 제한하는 등 절차 개선 의지를 보이는 만큼 향후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첨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품목명 1	HS Code	1902	수입관세율(%)	0
면류	수입액(18/US\$백만)	16	대한수입액(18/US\$백만)	2
	선정사유	한류 영향으로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 및 선호도 증가로 수요 증가 기대		
	시장동향	2018년 기준 면류 시장규모는 7억 3,666만 달러(1달러=50페소 기준)로 추정되며 최근 5년간 8%에 육박하는 증가세 기록 2022년까지 연평균 3%의 지속적인 성장세 기대		
	경쟁동향	- 수입규모는 2015년 잠시 주춤한 이후 회복세로 전환, 2018년 기준 4,250만 달러에 달함 2018년 수입통계 기준 주요 경쟁국은 중국(28.41%), 인도네시아(20.13%), 아랍에미리트(11.60%), 호주(8.95%), 터키(4.94%) - 한국 수입점유율은 9.27%로 4위		
	진출방안	- 대형유통망 전문 벤더를 통한 제품 납품 추진 - 식품의 경우 여타 소비재와 달리 온라인 유통망을 통한 판매는 약한 편		
	유망국가	중국,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호주, 터키		
품목명 2	HS Code	2710	수입관세율(%)	0
석유	수입액(18/US\$백만)	5704	대한수입액(18/US\$백만)	1825
	선정사유	최근 3년간 국산제품 수입점유율이 2016년 19.80%, 2017년 25.88%, 2018년 32.00%로 높음		
	시장동향	필리핀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에 따르면 2017년 1억 6,650만 배럴이던 석유제품의 수요는 2018년 1억 6,880만 배럴로 증가함		
	경쟁동향	- 수입통계 기준 주요 경쟁국은 중국(33.71%), 싱가포르(11.10%), 말레이시아(7.58%), 인도(4.11%), 일본(3.10%) - 한국 수입점유율은 32.00%로 2위		
	진출방안	- 석유 전문 수입업체와의 네트워킹 구축 - 꾸준한 납품 실적을 통한 우수성 어필 필요		
	유망국가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 일본		
품목명 3	HS Code	6309	수입관세율(%)	5
기타섬유제품	수입액(18/US\$백만)	19	대한수입액(18/US\$백만)	5
	선정사유	최근 3년간 국산제품 수입점유율이 2016년 28.03%, 2017년 28.06%, 2018년 24.99%로 높음		
	시장동향	섬유·의류산업의 성장세로 관련 원부자재·직물에 대한 수요 역시 꾸준할 것으로 판단		
	경쟁동향	- 수입통계 기준 주요 경쟁국은 일본(27.44%), 미국(16.28%), 중국(9.97%), 말레이시아(5.77%), 홍콩(4.30%) - 한국 수입점유율은 24.99%로 2위		
	진출방안	- 섬유·의류 전문 수입업체와의 네트워킹 구축 - 꾸준한 납품 실적을 통한 우수성 어필 필요		
	유망국가	일본, 미국, 중국, 말레이시아, 홍콩		

품목명 4	HS Code	6006	수입관세율(%)	0
편직물	수입액(18/US\$백만)	155	대한수입액(18/US\$백만)	41
	선정사유	시장 확대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산 점유율도 높아 수출 증가 기대		
	시장동향	섬유·의류산업의 성장세로 관련 원부자재·직물에 대한 수요 역시 꾸준할 것으로 판단		
	경쟁동향	- 수입통계 기준 주요 경쟁국은 중국(39.67%), 대만(12.14%), 홍콩(10.67%), 베트남(6.86%), 일본(1.21%) - 한국 수입점유율은 26.66%로 2위		
	진출방안	- 섬유·의류 전문 수입업체와의 네트워킹 구축 - 꾸준한 납품 실적을 통한 우수성 어필 필요		
	유망국가	중국, 대만, 홍콩, 베트남, 일본		
품목명 5	HS Code	7216	수입관세율(%)	0
철 및 비합금강, 기타 형강	수입액(18/US\$백만)	300	대한수입액(18/US\$백만)	59
	선정사유	건설업 호황, 제조업 회복세에 따른 수요 증가 가능성이 충분하며 한국산 점유율이 높은 편		
	시장동향	객관적인 통계자료 입수는 불가하나 경기 흐름상 수입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전망		
	경쟁동향	- 수입통계 기준 주요 경쟁국은 중국(58.21%), 태국(12.28%), 아랍에미리트(7.28%), 일본(1.27%), 대만(0.61%) - 한국 수입점유율은 19.91%로 2위		
	진출방안	인프라·건설 설비·제품 전문 벤더 발굴		
	유망국가	중국, 태국, 아랍에미리트, 일본, 대만		
품목명 6	HS Code	7320	수입관세율(%)	0~20%
자동차부품	수입액(18/US\$백만)	28	대한수입액(18/US\$백만)	3
	선정사유	2019년 체결 예정인 한-필리핀 FTA 발효 시, 관세율 인하로 가격 경쟁력 향상될 것으로 전망		
	시장동향	2018년 기준 자동차 판매 규모는 40만대 가량으로 전년 대비 15.22% 감소한 수치이나 필리핀 자동차 생산협회(CAMPI)는 2019년 회복세 전망 - 시장 동향을 가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최신 통계치 입수가 곤란하나 일본 완성차 메이커들의 제조설비 확충에 따라 부품 수입수요도 일정 수준을 유지할 전망 - 단, 여타 동남아 지역에 비해 제조설비 확충에 한계가 있어 OEM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AS 부품·액세서리 부문 전망이 보다 나은 편		
	경쟁동향	- 수입통계 기준 주요 경쟁국은 일본(38.45%), 중국(16.63%), 홍콩(7.35%), 싱가포르(4.83%), 말레이시아(3.67%) - 한국 수입점유율은 10.86%로 3위		
	진출방안	자동차부품 전문 벤더 공략, AS 부품 및 액세서리 비중 확대		
	유망국가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첨부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품목명 1	선정사유	필리핀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개발계획에 따른 시장 수요 확대
건설·플랜트	시장동향	도로, 교통, 공항·항만, 수자원 개발, 철도 등 거의 모든 인프라 분야에서 프로젝트 다수 추진 중
	경쟁동향	필리핀, 일본, 중국, 미국, 인도 등
	진출방안	· 업종상 외국기업 직접 진출이 어려우므로 현지기업·다국적기업과의 협력 진출이 바람직 · EDCF 지원 사업은 물론 외국 정부 ODA 사업 참여를 통한 인지도 및 노하우 어필이 중요
품목명 2	선정사유	보다 나은 삶, 건강한 삶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및 요구 확산으로 근거리 의료시설·병원, 의약품에 대한 수요 점증
보건·의료	시장동향	· 의료시설의 경우 일부 대형병원 외 열악한 편 · 의약품 시장은 과거 전염성 질병 치료제에서 비전염성 질병 치료제로 수요 비중 변화
	경쟁동향	필리핀, 인도, 미국, 유럽, 대만 등
	진출방안	· 근거리 의료시설을 구축 중인 현지 대기업에 대한 설비·시설 납품 모색 · 필리핀 질병 발병현황 변화에 맞는 제품 집중 마케팅
품목명 3	선정사유	정부 차원의 육성 노력으로 향후 관련 시장 확대 가능성 다대
여행·관광서비스	시장동향	외국인 관광객 중 한국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인에게 친숙한 지역
	경쟁동향	필리핀, 일본, 중국, 아세안 국가 등
	진출방안	필리핀 현지 업체가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관점에서의 업종·업체 선정 필요
품목명 4	선정사유	한류 지속으로 한국 대중문화를 비롯한 콘텐츠 관련 관심 꾸준
문화·교육·콘텐츠	시장동향	K-Drama, K-Pop 등 한류의 영향이 식품, 화장품 등의 소비재는 물론 문화·엔터테인먼트·교육 관련 콘텐츠로 확대되는 추세
	경쟁동향	미국, 일본, 아세안 국가
	진출방안	한류 인기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되 관련 콘텐츠 유통기업 발굴 필요
품목명 5	선정사유	거대 내수시장으로 외식을 비롯한 소매유통, 서비스 부문 수요 다대
프랜차이즈	시장동향	· 전체 시장 규모는 210억 달러로 추정되며 외식업 비중이 높음 · 소매유통 부문의 경우 외국계 편의점, 생활용품이 높은 비중 차지 · 우리 기업이 강점을 보유한 IT, 교육 콘텐츠, 미용·뷰티 부문으로 시장 확대 추세
	경쟁동향	필리핀 현지기업, 일본, 동남아 국가 등
	진출방안	현지 법규상 직접 진출보다는 현지 업체와의 합작 혹은 마스터 프랜차이즈 진출이 현실적

첨부 3 2020년도 KOTRA 주요 사업(잠정)

필리핀 소비재 진출전략 무역사절단

- 목적 : 필리핀 내 K-Wave를 통한 한국 소비재 시장 진출 확대
- 일시/장소 : 2020년 2월/마닐라 시내 호텔 등
- 내용 : K-Fashion&Beauty 및 각종 소비재 상품 전시, 비즈니스 상담회 등
- 참가자 구성
 - 한국 측 : 소비재 분야 기업 20개사
 - 필리핀 측 : 필리핀 대형 소비재 유통·수입업체 약 60개사

한-필 FTA 활용 진출전략 세미나

- 목적 : 한-필 양자 FTA 활용을 통한 필리핀 진출 유망 분야 및 진출전략 안내
- 일시/장소 : 2020년 3월(잠정)/마닐라
- 내용 : 한-아세안 FTA 및 한-필 FTA 차이점, 주요 변화, 활용 방법 등 제시

필리핀 경영지원 세미나

- 목적 : 외국인 투자 관련 법령 개정 안내를 통한 리스크 진단 및 대응방안 모색
- 일시/장소 : 2020년 4월/마닐라
 - * 시기는 필리핀 정부의 법령 제·개정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내용 : 조세 인센티브 개정 등 주요 변화 및 시사점, 리스크 진단, 해결·대응방안 제시 등

필리핀 취업박람회

- 목적 : 필리핀 취업 희망 청년들의 현지기업 혹은 투자진출 기업 취업 지원
- 일시/장소 : 2020년 5월(잠정)/마닐라
- 내용
 - 필리핀 취업 현황 및 지원정책, 취업 성공사례 공유 등 세미나
 - 구인 기업(필리핀 현지·외국계 기업, 한국 투자진출 기업)과 구직자 간 현장·화상면접 실시

수출초보기업 온라인 유통망 진출사업

- 배경 : 온라인 문화, IT 기술에 익숙한 Y세대(15~29세)가 필리핀 인구의 주력으로 떠오르며 온라인, 모바일이 새로운 유통채널로 부각
- 시기 : 2020년 2분기
- 대상 : 수출초보기업 20개사 내외
- 내용 : 기(既) 진출 한국(CJ오쇼핑) 및 현지(Shop TV) 온라인 유통채널에 수출초보기업 신규 입점을 통한 시장 진출 기회 확보

한-아세안 프로젝트 플라자(Korea-ASEAN Project Plaza 2020)

- 일자/장소 : 2020년 3분기/마닐라
- 내용
 - 한-아세안 인프라 협력 포럼
 - MDB·JICA·다국적 인프라 기업과의 비즈니스 네트워킹
 - 프로젝트 수주 상담회
- 참가자
 - (한국) 프로젝트 수주 관심기업, 설비·제품 납품기업 등 30개사
 - (해외) MDB·JICA, 필리핀 및 아세안 발주처, 건설·인프라 관련기업 등 70개사

에너지·수처리 분야 벤더 등록 지원 사업

- 목적 : 에너지, 수처리 부문 납품 필수 조건인 벤더 등록 지원을 통해 우리기업 진출 확대 지원
- 일시/장소 : 2020년 중/마닐라
- 내용 : 유력 벤더 대상 한국제품·서비스 설명회 및 시연회, 비즈니스 상담회, 벤더 등록 행정 지원 등

첨부 4 2020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없음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한-필 FTA 발효	2020.1	
CITIRA 법안 발효	2020.1	법인세율을 2029년까지 현재 30%에서 20%로 매년 1%씩 점진적 인하, 기업 인센티브 최초 10년간 수혜 가능, 추가 요건 충족 시 9년 더 인센티브 수혜 가능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국제 교육 기술 엑스포 EDUCATECH WORLD EXPO	2020.2.19 ~ 20	https://www.terrapinn.com/exhibition/edutech-philippines/index.stm
필리핀 국제 빌딩&건축 전시회(WORLDBEX) Philippine World Building and Construction Exposition	2020.3.18 ~ 22	https://worldbex.com/
필리핀 프랜차이즈 엑스포 Franchise Asia Philippines	2020.3.25 ~ 29	https://franchiseasiaph.com/2020/
마닐라 국제 차량 전시회 MIAS-Manila Auto Show	2020.4.2 ~ 5	https://manilaautoshow.com/
국제 전기 전시회 Power&Electricity World Philippines	2020.5.18	https://www.terrapinn.com/exhibition/power-electricity-world-philippines/index.stm
마닐라 국제 식음료 전시회(MAFEX) Manila International Food and Beverage Expo	2020.6.17 ~ 21	https://mafex.com/
필리핀 국제 차량 부품 전시회(PHILAUTO)	2020.7(예정)	https://www.philauto.org/
필리핀 국제 창고&물류 전시회(PHILMAT)	2020.7(예정)	https://www.eventseye.com/fairs/f-philmat-25563-1.html
교통 물류 엑스포 Transport and Logistics Philippines	2020.8(예정)	https://www.eventseye.com/fairs/f-transport-and-logistics-philippines-25187-1.html
국제 음식 엑스포(WOFEX) World Food Expo	2020.8(예정)	https://www.wofex.com/
아시아 보안 기술 전시회(ADAS) Asian Defense, Security&Crisis Management Exhibition	2020.9.23 ~ 25	https://www.adas.ph/
국제 냉난방, 통풍 기술 전시회 HVAC/R Philippines-Manila International Heating, Ventilating, Air-conditioning Tech	2020.11(예정)	https://www.eventseye.com/fairs/f-hvac-r-philippines-manila-8747-1.html

I. 한-필리핀 상생협력 필요성과 미래비전

가. 필리핀의 협력 잠재력과 주요국 협력 현황

필리핀의 잠재력

- 아세안 시장의 관문이자 역내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 보이는 필리핀
 - 아세안 6억 인구 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한 관문이며, 아세안과 한·중·일 동북아 국가를 잇는 관문으로 전략적 가치가 높은 국가
 - 상반기 예산안 통과 지연으로 인해 예상보다 낮아진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2019년 6.1%로 아세안 역내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 기록 전망(자료 : Fitch)
 - * 필리핀 경제성장률 추이 : 6.1%(2014년) → 6.1%(2015년) → 6.9%(2016년) → 6.7%(2017년) → 6.2%(2018년)
- 우수한 인적 자원 갖춘 영어권 국가
 - 모국어가 영어는 아니지만 영어 교육의 영향으로 영어를 구사하는 젊은 인력이 풍부(중간연령 23.5세)
 - 주변국에 비해 안정된 인건비 상승이 장점으로 작용, 중국 등 인근국의 인건비 상승 추세에 따라 필리핀 노동 시장이 대안으로 부각
- 광물자원이 풍부하여 높은 개발 잠재력 보유
 - 코발트, 금, 구리, 니켈 등 광물자원 매장량이 풍부하지만 개발허가권 부여 면적이 광물 매장 지역의 2%에 불과하여 향후 개발 잠재력 다대
 - 대법원의 1995년 광업법 합헌 판결(2004년)로 외국인의 자원개발 투자가 허용되었으나, 두테르테 정부 출범 후 환경보호를 이유로 23개 광산에 폐지 명령이 내려지는 등 광산 규제가 엄격해짐
 - 인도네시아 2020년부터 니켈 수출 금지 발표한 뒤, 대체 공급처로 필리핀이 급부상. 필리핀산 니켈 수입수요 증가해 니켈 생산 및 수출 증가 기대

주요국의 대(對)필리핀 경제협력 현황

- 두테르테 대통령은 2016년 6월 취임 이후 지금까지 ‘친중탈미’ 노선을 보이고 있음. 취임 이래 다섯 차례 방중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관광객을 유치하며 경제협력 관계 강화

주요국의 대(對)필리핀 경제협력 현황

국가명	경제협력 진행사항
미국	2019.7.13. 제8차 양자 전략적 대화 개최 통해 경제, 군사, 안보 등 논의 - 미국 체류 필리핀인은 300만 명, 필리핀 체류 미국인은 10만 명에 달하는 등 경제·사회적 유대관계가 높음
중국	2019년 8월 두테르테 방중, 교육, 과학기술, 관세, 필리핀 철도 프로젝트 등에 대한 특혜차관 등 6개 항목에 양해각서(MOU) 체결
일본	- 두테르테 대통령 세 차례 방일, 아베 총리 두 차례 방필 통해 활발한 필-일 정상외교 실시 - 일본은 필리핀의 제1의 공적개발원조(ODA) 지원국, 제2의 교역대상국이자 주요 투자국
러시아	2019년 10월 두테르테 방러, 제약, 의료기기, 민간항공, 인프라 등 분야에서 협력 기회 논의 -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테러리즘 척결을 위한 방위 협력 추구
아세안	(인도네시아) 2019.7.7. 관광, 농업, e-커머스 분야에 5개 MOU 체결 (말레이시아) 2019.3.9. 양국 관광, 보건, 교육 분야에 협력, 투자 논의

필리핀의 FTA 체결 현황

협정명	체결국	체결일자	발효일자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ATIGA)	아세안 10개국	1992.1.28	1993.1.1
ASEAN-China Free Trade Area(ACFTA)	아세안 10개국, 중국	2002.11.4	2006.1.6
ASEAN-Korea Free Trade Area(AKFTA)	아세안 10개국, 한국	2005.12.13	2006.1.1
Philippines-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PJEPA)	필리핀, 일본	2006.9.6	2008.10.8
ASEAN-Japan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AJCEPA)	아세안 10개국, 일본	2008.4.14	2008.12.1
ASEAN-Australia-New Zealand Free Trade Agreement(AANZFTA)	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2009.2.27	2010.1.1
ASEAN-India Free Trade Area(AIFTA)	아세안 10개국, 인도	2009.8.13	2010.1.1
Philippines-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Free Trade Agreement(PH-EFTA FTA)	필리핀, EU	2016.4.28	2017.12.8
ASEAN-Hongkong Free Trade Agreement(AHFTA)	아세안 10개국, 홍콩	2017.11.12	2019.1.1

자료 : Philippine Tariff Commission

한-필리핀, 1949년 수교 체결 이후 70주년 맞아

- 양국 간 경제협력은 무역, 투자, 개발협력, 노동협력,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 중
 - － 1949년 3월 3일, 필리핀과 정식 외교 관계 국교 수립
 - － 1970년대와 1980년대, 양국은 경제협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무역협정, 경제·기술협력 협정 체결
 - － 2000년대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약정 체결

- 2018년 6월 4일, 한-필 정상회담에서 교통, 경제통상, 재생에너지, 과학기술, 인프라 분야 협력에 대한 5건의 MOU 체결
- 2019년 한-필 수교 70주년 맞아 양자 FTA 추진 중(11월 연내 타결 전망)

나. 한-필리핀 상생협력 미래비전 도출

‘필리핀 개발계획(PDP)’과 ‘국가비전 2040(Ambisyon Natin 2040)’

- 두테르테 정부 출범 이후 상위 중소득 국가 진입을 위한 ‘필리핀 개발계획(Philippine Development Plan) 2017~2022’ 발표
 - 2017년 3월 필리핀 국가경제개발청(NEDA)이 발표한 동 계획은 2022년까지 ① 중기 경제성장률 7~8% 달성, ② 1인당 국민소득 5천 달러 이상으로 증가, ③ 빈곤률 21.6%에서 14%로 완화, ④ 실업률 5.5%에서 3~5%로 축소 등을 목표
 - ‘필리핀 개발계획 2017~2022’를 통해 소득세 감면 등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제11차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완화 등의 투자정책을 통해 필리핀 개발계획 추진을 뒷받침 하는 중
 - * 필리핀은 자국민의 사업권 보호를 위해 투자제한 분야를 지정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 수정된 제11차 네거티브 리스트(2018년)를 통해 공공사업 분야 투자지분 한도가 25%에서 40%로 확대되어 외국기업들의 필리핀 건설 분야 진출이 유리해짐
- 2016년 10월 수립한 장기개발계획인 ‘국가비전 2040’의 주요 내용
 - 2040년까지 중고소득국 진입, 국민의 건강한 삶, 빈곤 없는 중산층 사회와 신뢰사회 건설

두테르테 대통령의 11개 의제

번호	내용
1	평화와 질서 유지, 부패 척결
2	거시경제 기초 유지 및 개선
3	조세 제도 개편
4	외국인 직접투자(FDI) 관련 법적 제한 개선하고, 사업의 용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국 관료주의 개선
5	인프라 투자 가속화
6	농업부문 발전
7	토지소유권 보장 등을 비롯한 농업 개혁 및 관리 시스템의 병목현상 해결
8	보건 관리 및 기초교육(K-12) 강화
9	과학, 기술, 창조적 예술 장려
10	사회적 보호 프로그램 개선
11	책임 가정 및 RPRH법의 이행 강화

자료 : 필리핀 국가경제개발청(NEDA)

〈참고〉 필리핀 제11차 외국인 투자제한리스트(FINL) 발표

□ 외국인 투자제한리스트(FINL) 개요

- 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FINL) 개요
 - 필리핀은 1991년부터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국민의 사업권을 보호를 위해 외국인투자법(FIA, Foreign Investment Act) 부속서인 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이하, Negative List)를 통해 투자 제한 분야를 지정하고 있으며, 이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는 외국인의 지분을 100% 허용(관련규정 : Foreign Investment Act of 1991, RA8179·EO858)
 - Negative List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업종별 관련법에 따라 외국인의 지분을 제한하고 있는 분야도 있으므로, 진출 전 필리핀기업 등록 및 감독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에 확인
 - 예를 들어 건설 분야의 경우 일반 건설면허 취득 요건으로 인해 외국인 지분이 40%로 제한되며, 물류 분야는 SEC Memorandum Circular No.30에 의거 외국인 지분을 40%로 제한
 - Negative List는 2년마다 검토하고 필요시 업데이트 되며, 이번 2018년에 개정된 11차 Negative List는 지난 2015년 개정된 10차 Negative List에 이어 4년 만에 업데이트

□ 개정 동향

- 추진 배경
 - 두테르테 행정부는 2016년 당선 당시부터 외국인 투자 규제법 완화를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여, 경제 성장과 대형 인프라 사업 추진을 강조
 - 이에 2017년 11월 21일 두테르테 대통령은 국가경제개발청(NEDA) 및 관련 정부기관에 8개의 분야에 외국인 투자제한법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시하는 명령서 “Memorandum Circular 16”을 발표
 - 필리핀 대통령궁 말라카냥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 규제법 완화가 필리핀의 경쟁력을 높이고,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도 더욱 높은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전함
 - ‘Memorandum Circular 16’ 발표 후 필리핀 국가경제개발청(NEDA) 장관 Ernesto Pernia는 두테르테가 발표한 명령문 중 절반만이 실제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
- 명령문 발표 후 약 1년만인 2018년 10월 20일 두테르테 대통령은 행정명령(Executive Order, EO) 65호에 서명하며 11차 외국인 투자제한 리스트를 최종 승인
 - 결과적으로 상기 명령문 중 실제 개정이 반영된 분야는 2개(전문직, 교육서비스)이지만, 이번 개혁은 외국인 투자 규제법 재정 후 역대 가장 큰 완화 조치로 긍정적인 평가

□ 주요 개정 내용

- 분야별 외국인 투자 지분 확대
 - 국내 자금으로 추진되는 공공사업(인프라 및 국제 경쟁 입찰로 진행되는 사업은 제외)의 건설 및 보수에 대한 외국인 참여 지분을 25%에서 40%로 확대
 - 법인 또는 협회에 한해 최대 40%까지 교육기관 투자가 허용되었던 것을 외국인 거주자(Foreign temporary residents)에게도 40% 지분 투자를 허용
 - 사설 라디오 네트워크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25%에서 40%로 확대
- 분야별 외국인 투자 전면 개방
 - 필리핀에서 외국인이 100% 투자하기 위해서는 최저 납입자본금 20만 불을 충족시켜야 하며, 기존 100% 투자가 가능한 분야로는 서비스, 도매, IT, 관광, 제조, 수출업(생산품 100% 수출 시 자본금 요건 제한 없음) 등

- 11차 FINL 개혁을 통해 추가적으로 전면 개방된 분야는 다음과 같음
 - 현재 대중매체(Mass Media)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전면 금지되어 있으나, 인터넷 비즈니스를 대중매체 범주에서 제외함으로써, 인터넷 비즈니스 분야가 전면 개방
 - 전문 인력 조정 회사(Adjustment Company)에 대한 외국인 지분 40% 제한을 없애고 외국인 투자 전면 허용
 - 금융대출업(Lending Company), 금융사(Financing Company), 투자신탁사(Investment House)에 대한 투자도 완전 개방
 - 외국인 지분이 전혀 허용되지 않던 사설경비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완전 개방
- 분야별 외국인의 전문직 활동 관련 허용 및 제한
 - 호혜주의에 따른 약사 활동을 허용
 - 해양공학 및 금속공학(Metallurgical Engineering), 선박기술자 및 설비기술자의 활동 완전 허용
 - 호혜주의에 따라 선원 및 선박기관사의 활동을 허용하였으나 전면 금지로 개정
 - 호혜주의에 따라 외국인의 모든 교수 활동을 허가하였으나, 개정본에서는 호혜주의에 따른 기초 및 중등교육에 대한 교수 활동과 고등교육에서의 비전문 교과에 대한 교수만을 허용
 - 우주공학, 농업 및 바이오시스템 공학, 산림, 사회복지에 대한 활동 제한이 신규로 추가

자료 : KOTRA 해외시장뉴스 '필리핀 11차 외국인 투자제한 리스트(FINL) 발표'(2018.12.30)

필리핀 산업 육성정책

- 제조업 부흥 프로그램(MRP, Manufacturing Resurgence Program)
 - 필리핀 통상산업부(DTI) 주도로 산업의 기존 역량을 재구축하고, 역량을 강화하며, 비교우위에 기반을 둔 경쟁력 제고가 목적
 - 핵심 목표는 고부가가치 및 아세안에 기반을 둔 생산 네트워크 및 글로벌 밸류체인에 편입될 수 있도록 국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 MRP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농업기반 제조업을 제조업 부문의 포괄적 성장에 중요한 동력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소상공인 및 농업협동조합 지원, 마케팅 및 금융조달을 위한 대기업과 협업 등을 위한 지원을 제공
 - MRP는 2020년까지 국가 총생산(GDP)의 30%까지 제조업 비중을 늘리고, 전체 고용의 15% 수준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함. 비단 제조업 세부 부문별 지원뿐 아니라 인적자원 교육 및 트레이닝 관련 정책도 수행 중
- 포괄적 국가산업전략 프레임워크(CNIS, Comprehensive National Industrial Strategy Framework)
 - CNIS는 농업, 서비스 부문을 제조업과 연결하고 통합하기 위한 정책이며,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고 국내적으로는 건실한 산업을 육성하는데 목적
 - 또한 강력한 산업정책, 외국인 투자 촉진, 기술교육, 혁신 및 R&D 장려, 소상공인 정책 등을 통해 고품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속 가능한 포용적 성장이 목표

- 앞서 언급한 MRP와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글로벌 밸류체인(GVCs)에 편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농업과 제조업, 서비스 부문을 관통하는 인프라나 물류, 규제 등의 이슈를 다룸
- CNIS 프레임워크에서 5가지 우선순위로 선정한 산업분야는 1) 제조업, 2) 관광업, 3) 인프라 및 물류, 4) 정보통신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BPM, Business Process Management), 5) 기업농업(Agribusiness)
- 포용적, 혁신적 산업정책(I3s 또는 I-cube, Inclusive, Innovation-led Industrial Strategy)
 - 2017년, 두테르테 정부는 CNIS 프레임워크를 업그레이드해서 I3s 또는 I-cube라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CNIS와 경쟁, 혁신, 생산성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혁신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있음. 산업 성장에 'Industry 4.0'을 외부 요소로 포함시켰다는 것이 큰 특징
 - I3s는 12가지 산업을 주요 육성 부문으로 선택했는데 기존 CNIS가 선택한 4개(관광, 인프라 및 물류,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기업농업) 외에도 전기전자, 항공부품, 자동차부품, 화학, 조선, 건설, e-커머스, 기기 및 염료, 가구, 공예품 등을 선정

필리핀 수요 대비 우리나라 역량

협력 우선 산업		구체적인 역량
자동차·부품	에너지·인프라	◆ ICT 강국 - IT·정보통신 관련 기술 전수 가능
전기전자	건설	◆ 제조·건설업 우수한 기술 보유 - 완성차 조립 기술 보유 - 에너지·인프라 건설 기술 및 관리 능력 우수
방위산업	ICT	◆ 방위산업 - 선진기술력에 가격경쟁력 갖춘

신남방정책(한)-국가비전2040(필) 연계한 실질적 협력 강화 필요

- 2018년 6월 한-필 정상회담을 통해 정무, 사회·문화, 경제·통상, 한반도 정세, 지역 및 국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협의
 - 두테르테 대통령, 필리핀 거주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필리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 약속
 - 문재인 대통령, 한국 내 필리핀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 보호·지원 노력 확대 약속

2018년 한-필 정상회담 MOU 체결 내용

MOU 명칭	주요 내용 및 의의
교통협력 MOU	도로·철도·공항 등 해양을 제외한 교통 분야에서 폭넓은 협력을 이어가고 양국 교통 당국 간 실무회의 추진
경제통상협력 MOU	양국 경제협력채널인 '경제협력공동위원회(JCTEC)'를 통해 무역, 투자, 산업 기술 등 협력 분야의 정보 교환과 프로젝트 발굴 강화 목적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협력 MOU	필리핀 국방부 소유 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확산을 위해 양국 간 재생 에너지 합작 사업 타당성조사, 사업이행, 세미나 및 워크숍 추진
과학기술협력 MOU	과학기술 혁신정책, 바이오·나노·신소재·데이터 분석 등 양국 공통 관심 분야에 대한 부처 간 실무협의 강화
세부 신행만 건설사업 차관공여협정	해상운송 여건 향상을 위한 세부 신행만 건설사업에 1억 7300만 달러 규모의 대외 경제협력기금(EDCF) 차관공여를 계약하는 내용

II. 주체별 상생협력 과제와 실행방안

가. [G2G] 한-필 방산 협력 심화

- (정책 수요) 필리핀 정부, 2013년 군 전투력 증강을 위해 군 현대화 프로그램(Armed Forces of the Philippines Modernization Program) 발표
 - － 필리핀군이 보유하고 있는 방산물자는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었고 주변국과의 영토분쟁 및 이슬람 반군세력에 대한 대비하여 전력증강을 위한 신무기 구매 적극 추진
 - － Horizon 1, 2, 3의 세단계로 구성되며 아키노 임기 중 Horizon 1을 마무리하고 현재 두테르테 정부하에 Horizon 2 진행 중
 - * Horizon 1 : 2013~2017년, Horizon 2 : 2018~2022년, Horizon 3 : 2023~2027년
 - * 두테르테 대통령, 임기 내 우선 구매할 품목을 정하고 57.6억 달러 예산 승인
- (방산협력 이력) 필리핀은 방위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로부터 방산물자를 대부분 수입하며 한국과 필리핀은 1994년 군사 분야 협력 위한 양해각서 체결
 - － 한-필리핀 군수방산협력 양해각서(1994년), 한-필리핀 특정 방산물자 조달에 관한 시행약정(2009년), 군사협력 양해각서(2013년),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2015년) 등 양국 간 방산협력 위한 법적토대 마련
 - － 특히, 1990년대부터 해군 함정(고속정)과 공군 전투기(제공호) 등 군사무기 및 물자 공여를 통해 상호 간 신뢰 관계 구축
 - － 또한 최근에는 방사청과 필리핀 국방부가 한-필리핀 공동군수위원회를 매년 개최해 실제적인 방산협력 강화 추세
 - － 한국군의 무기체계와 장비들은 가성비와 신뢰도가 높아 필리핀군과 경찰들에게 좋은 평가
 - * 2015년 FA-50PH 12대, 상륙돌격장갑차(AAV) 8대, 2016년 초계함(PCC) 2척 수출 계약
- (시사점) 오랜 방산협력 역사를 바탕으로 필리핀 군 현대화 사업을 활용하여 필리핀군의 전투기와 전투함을 한국의 무기체계로 라인업(lineup) 추진 필요

나. [B2B] 양국 제조업(자동차, 자동차 부품) 기업 간 산업 협력

- (정책 수요) 제조업 기반이 약한 필리핀은 자동차 관련 산업 유치 추진
 - － 자동차 산업 진흥전략인 CARS를 통해 외국 자동차 제조사가 필리핀 내 생산시설을 구축하면 그를 통해 생산된 차 판매 시 필리핀 정부로부터 보조금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요타와 미쓰비시 수혜 중
 - － 또한, 현재 전기차 생산시설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 마련 중이며, 하이브리드 및 전기 차량의 이용, 전기차 충전소 설치 등에 관한 국가 에너지 정책 및 규제 방안에 대한 법률(상원 법안 No.2137) 승인 대기 중

- 필리핀 교통부(DOTr)의 대중교통 현대화 프로그램(PUVMP)을 통해 필리핀의 상징적 대중 교통수단인 지프니(jeepney)를 전동 지프니(e-jeepney)로 교체 추진 중
- (시장 수요) 가계소득 증가와 중산층 성장으로 자동차 수요 꾸준히 증가
 - 현재 2019년 상반기 필리핀 시장점유율 1위 브랜드는 도요타(42.6%)이며 2위는 미쓰비시 (18.1%). 두 브랜드의 시장점유율 합이 60%를 넘으며, 3위인 현대는 시장점유율 10% 수준
 - 필리핀 자동차 제조업체는 판매량 증대를 위해 은행과 연계해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등 노력 펼쳐 필리핀 자동차 판매량 꾸준히 증가세
 - CARS 통해 보조금 받는 일본차 브랜드처럼 자동차 생산시설 진출을 통해 보조금도 받고 금융기관과 연계해 판매전략 구축한다면 한국산 자동차 시장점유율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협력 체계) 한국의 자동차·전기차 생산기업 및 관련 부품 생산업체 필리핀 진출 지원
 - 공동물류센터 구축을 통해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현재의 한-아세안FTA 활용 및 향후 체결될 한-필 FTA 활용 제안을 통한 제3국 진출 지원

다. [B2G] 인프라 개발 협력 강화

① 협력 수요

- 아시아는 2017년 기준 세계 최대의 인프라 시장(3.9조 달러, 39%)이며 아세안은 이 중 28%의 비중을 차지
 - 아세안은 2015년 말 경제공동체(AEC) 출범과 함께 지역 간 개별 격차 극복과 연계성 증진을 위한 연이은 정부 주도 대형 프로젝트 추진
 - * 아세안 고속도로 네트워크(AHN : ASEAN Highway Network), 싱가포르 쿤밍철도연결프로젝트(SKRL : Singapore-Kunming Rail Link), 아세안 광대역 회랑, Meaka-Pekanbaru 전력망 연결사업
 - 아세안 인프라 시장은 산업발전과 도시화를 위한 신규 인프라 구축과 개보수 작업으로 향후 10년간 125% 성장 예상
- 신남방정책으로 한-아세안 인프라 협력 확대 분위기 조성
 - 아세안 회원국 내 대규모 인프라 개발사업 참가 가능성 제고의 기회
 - * 말-싱 고속철도, 롱안 석탄화력발전소(베), 경전철(인니), 세부 신항만·LNG 터미널(필) 등
- 두테르테, 인프라 개발을 임기 내 역점 사업으로 삼아 필리핀 경제부흥 추진하며 아세안의 인프라 개발 움직임 주도
 - 필리핀 경제발전의 최대 장애요소인 열악한 인프라 개선을 위해 前 아키노 정권을 능가하는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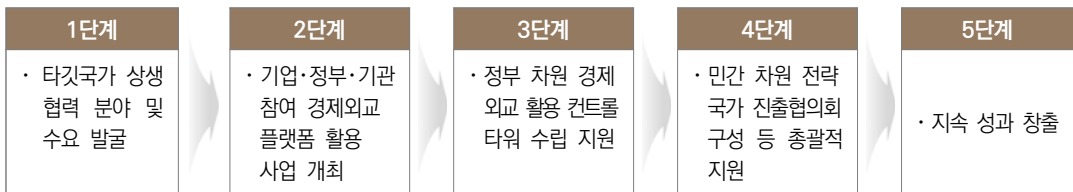
▲ BUILD BUILD BUILD 프로그램

- 두테르테 행정부, 인프라 예산을 2017년 GDP의 5.4%에서 2022년 임기 말까지 7.3% 수준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 (지난 50년간 6대 행정부가 기록한 평균치 2.4%)
- 두테르테노믹스에 따른 6개년 인프라 건설 프로그램으로 교통, 홍수관리, 수자원, 에너지, 통신, 하수도 등 총 4,800여 개의 프로젝트 실행계획

2 협력 방안

① 경제외교를 활용한 인프라 수주 확대 및 후속 지원

- 정부·기업·기관이 협업하여 프로젝트 수주 및 성과 창출 도모
 - 상대국가와 정부·기업·기관 레벨에서 다양한 경제협력 플랫폼 구축
 - 순방·방한 시 체결된 MOU 및 합의 내용을 토대로 비즈니스 기회 발굴
 - * KOTRA-순방국 유관기관 MOU 33건 중 12건 후속사업화
 - 사후 상시·밀착 지원을 통한 개별기업 맞춤형 지원수요 발굴
- 플랫폼 도입 및 활용 예시
 - 어젠다 발굴 → 사후관리까지 기업·정부·기관 선순환 협업체계 마련



② 프로젝트 정보제공 고도화 및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

- (정보수요) 프로젝트 시장규모, 동향 등 개황정보 이외에 제도, 법령, 발주기관, 현지기업 정보 등 종합적인 정보 제공 희망
 - 환경, 에너지 등 8개 분과 885개사 국내 고객협의체 운영 수요파악(2017년 1월)
 - * 애로사항 : 프로젝트 정보부족(46.4%), 가격경쟁(22.6%), 자원부족(20.2%), 현지 행정장벽(8.3%)
 - * 희망정보 : 입찰정보(63.1%),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정보(25.0%), 국가 발전 전략 등(11.9%)
 -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PMS) 콘텐츠 및 정보 전파 방안 개선

구분	기 준	개 선
정보발굴	입찰정보 발굴 중심	입찰정보+파이프라인+국가발전정책
전파방식	홈페이지 공개	주간 뉴스레터 푸시 서비스
운영방식	프로젝트 정보입력 중심	세부지원사항 등 프로젝트 쏠주기입력

* PMS 입력요건 충족 발주처에 한해 방한 초청사업 참여 자격 부여

- (네트워크) 필리핀 유망 프로젝트 발굴 현지 네트워크 강화
 - 해외공관, 주재국 정부, ADB 등과 국제기구와의 협업체제 구축

마닐라 무역관 사례

- ▶ 2018년 한-아세안 프로젝트 플라자 ADB 협력(교통, 수처리, 에너지 등)
- ▶ 공관 협업, 건설지원 협의회 간사 기관 참여(월 1회, 40개사)

③ 유망 분야 프로젝트 중점 공략 및 중소기업 지원

- (시장·기업수요 반영) 프로젝트 수요 증가에 대응, 발주처 초청 상담회, 사절단 파견 등 마케팅 역량을 집중
 - * GPP, MDB 프로젝트 플라자 등 주력사업에 필리핀 발주처 초청 확대
- (고부가가치 분야 중점) 핵심국 정책 연계, 친환경, 에너지, 스마트기술 등 고부가가치 투자 개발형 사업(PPP) 진출 확대 모색
 - * 단순 도급형 시공분야 편중 사업구조는 수익성 악화로 한계에 봉착
 - * 스마트시티, 물 산업, 환경, 스마트공항, 미래건설, 농산업(국토부 선정)
-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PPP)사업 진출 확대 모색
 - (해외) PPP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무역관 중심 네트워크 구축
 - * 현지 컨설턴트, MDB 관계자, 현지 정부기관, 유관기관 등
 - (국내) 해외 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업종별 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프로젝트 수주 및 파생수요에 따른 수출 확대 도모
 - * 투자개발형 사업 관련 기관별 협업 및 역할분담을 위한 MOU 체결 추진
- 중소기업 참여 가능 프로젝트 발굴 전파 및 연관 기자재 수출 기회 창출,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촉진 및 중기지원 강화
 - * 유관기관 협업 엔지니어링, 환경, 플랜트 등 분야별 사절단 파견

④ 상생협력·공유가치 활용, 인프라 시장 진출 기반 강화

-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을 통한 개도국 개발전략 수립 지원과 인프라 수주 연계
 - 신시장을 둘러싼 주요 국가와 경쟁 심화로 차별화된 접근 요구됨
 - * 상대국과 동반 성장 파트너로서의 역할 정립 및 이미지 제고 필요

- 컨설팅·정책자문 제공 외에도 경제협력과 비즈니스 연계 동반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후속 비즈니스 사업 추진
-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사업 추진으로 필리핀과 상생협력 가치를 공유하고 프로젝트 수주기반 마련
 - 현지 정부·발주처를 대상 기술경험을 전수하여 전문인력 양성과 우호적 진출 환경 조성
- 외국 정부 ODA 프로젝트에 한국기업 참여 기회 발굴
 - 외국 정부 ODA 프로젝트 지원기관과의 협력 확대를 통한 해당 기관 주도 사업 참여 기회 확대

마닐라무역관 사례

- ▶ JICA는 Sub-Contract의 경우, 30%까지 외국기업에게 문호를 개방
- ▶ 2018년 10월 개최 한-아세안 프로젝트 플라자 JICA 프로젝트 참여 세미나 개최
- ▶ 건설, 유지 보수, 관련 자재 납품 등 다양한 분야상담

〈참고〉 필리핀 플래그십 인프라 프로젝트 MAP

Build Build Build 계획, 1,680억 달러(약 189조원), 4800여 개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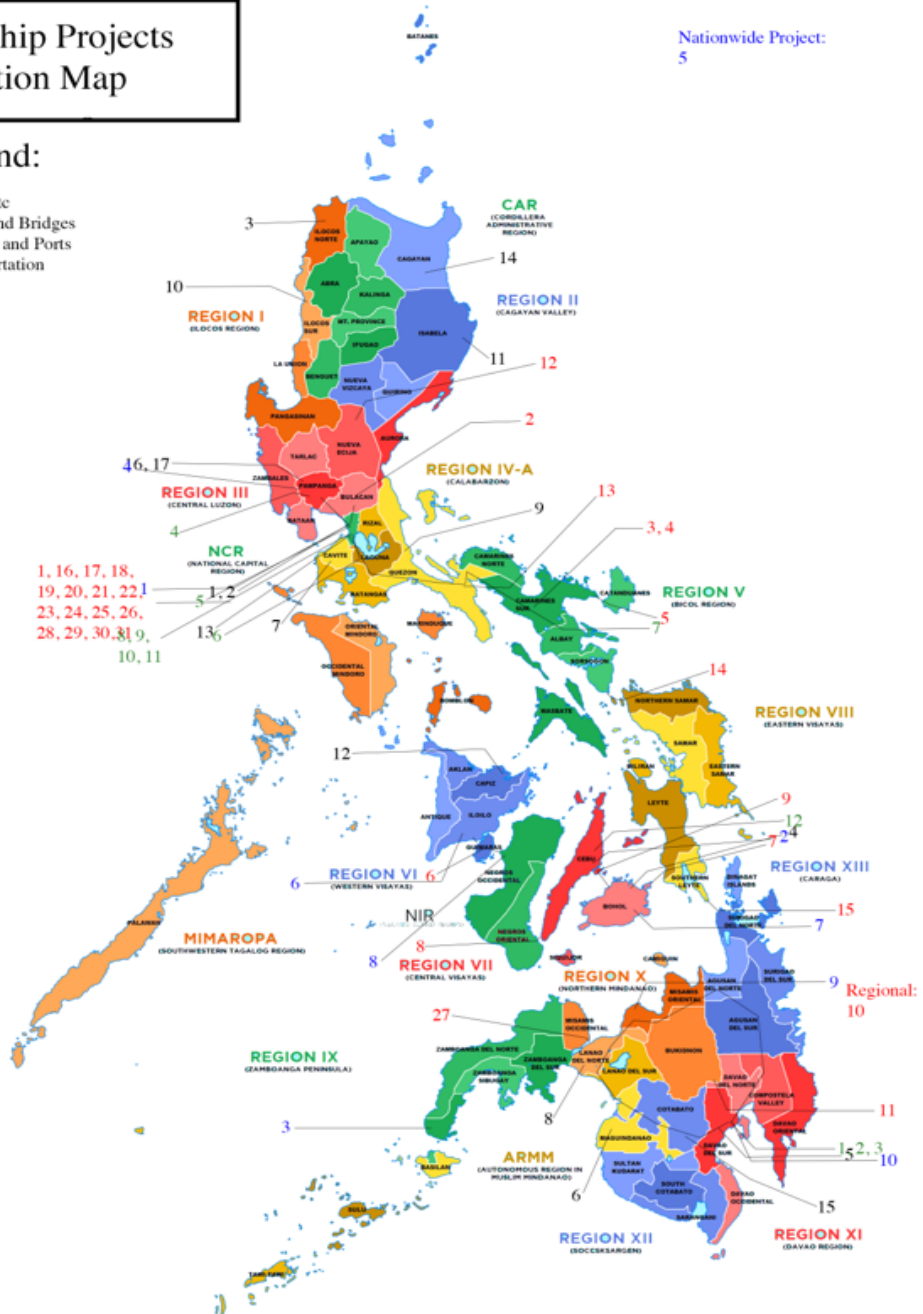
* 도로·교량, 공항·항만, 교통·철도, 수처리 등 4개 분야 75개 Flagship Project

* 세부 내역 첨부

Flagship Projects Location Map

Legend:

- Water, etc
- Roads and Bridges
- Airports and Ports
- Transportation



라. [국민] 동반자 관계 형성과 발전

① 상생을 위한 인적교류 확대방안

(현황) 필리핀의 산업·기술교육에 대한 높은 수요

- 필리핀은 제조업, 건설, 조선, ICT 분야의 교육수요가 매우 높은 반면,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현장교육 및 특수기술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편
 - － 필리핀의 현장경험이 있는 기술 및 기능직 강사는 섭외하기 어렵거나 고임금을 지불해야 하므로 대부분의 직업교육기관은 낮은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제공
 - － 직업교육을 마친 대학 졸업생들 역시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많지 않아 현장교육 및 취업연계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함

(추진방향) 한국 기술교육 및 한국기업 취업연계과정 파트너십 구축

- 필리핀에서는 한국을 제조업, 건설, ICT 강국으로 인식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한국식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한국기업과의 취업연계과정을 설립하는 것이 유망
 - － 한국 내 조선용접공, 토목건축 같은 산업 기능·기술직의 경우 3D 업종으로 분류,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절실한 상황
 - － 필리핀 기술교육청(Technical Education and Skills Development Authority, TESDA*)-한국 산업협회(조선, 건설, ICT 등)-구인수요가 있는 한국기업과 3자 파트너십 구축
 - * TESDA(필리핀 기술교육청)는 필리핀 정부기관으로 필리핀의 기술교육 및 기술개발을 관리·감독하는 임무를 수행
 - － 필리핀 내 한국인 강사 파견교육 → 한국 현장교육 및 연수 → 한국기업 취업 연계 과정을 수립하여 각 산업분야의 인적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상호 이해 증진 및 상생의 길 수립

② CSR 활성화

지속 가능한 먹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CSR 활성화

- 단순 기부의 평범한 CSR에서 벗어나 차별화된 CSR을 통해 마케팅 필요
 - － 필리핀 진출 국내기업의 CSR 활동은 기부활동이 다수를 이루고 있으나, 필리핀에는 전 세계의 기부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차별화가 어려움
 - － 필리핀 정부 및 국민들의 수요가 높고 장기적인 CSR 활동 전략 수립
- 필리핀 청년을 대상으로 기술전수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 확대 지원 필요
 - － 기술전수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 CSR은 필리핀 국민을 빈곤에서 탈출시키고 자립시킬 수 있는 CSR로 필리핀 정부의 높은 호응 기대

○ 필리핀 환경보호를 위한 CSR 프로그램 지원

- 필리핀은 약 7,000개의 섬을 자원으로 하여 관광산업이 매우 발달해 있으며, 필리핀 정부는 관광산업 발전 및 청정한 자연환경 유지를 위하여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심도 있게 기울임
- 필리핀의 하수처리시설 개선 프로그램, 깨끗한 폐기물 소각 및 재활용 노하우 전수 등의 CSR 활동을 통해 필리핀 정부와의 협업 가능

○ 필리핀 재난·재해 방지를 위한 CSR 프로그램 지원

- 필리핀은 태평양 연안에 위치하여 태풍 및 홍수가 자주 발생하며, 전 세계 지진의 90%가 발생하는 ‘불의 고리’에 위치하여 지진이 자주 발생
- 필리핀은 재난·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매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으나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술력이 부족하여 사전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노하우 전수 필요

필리핀 진출 국내 주요 기업의 CSR 활동 현황

기업명	CSR 활동
한국전력	‘한국전력 봉사단’ 결성. 필리핀 태양광 가로등·패널 설치, 문화공연
삼성전자	필리핀 가전 서비스 트레이닝 센터 운영, 필리핀 카비테 지역 초등학교 IT 교실 재건
포스코건설	독서·놀이·시청각 자료 감상 등 문화예술 교육공간인 크리에이티브룸 제공 도서, K-Pop 및 영화·드라마 등 문화콘텐츠와 프로젝트, 드론 등 기기 기증
이지바이오	필리핀 바탕가스지역과 남 코타바토 초등학교 대상으로 학용품 및 기증품 제공
삼성전기	100개 이상의 혈액백 기증, 연간 빈민촌 무료 건강검진 실시 및 영유아 음식 제공
대한항공	필리핀 네그로스섬 사랑의 집 짓기 봉사활동, 태풍피해지역 주거시설 보수 봉사
한진중공업	필리핀 카스틸레호스시에 학교 기증

Ⅲ. 향후 對필리핀 K패키지 실행체계(안)

① 한-필 경제협력공동위원회(JCTEC) 통한 지속적 이행점검 체계 가동

- 2018년 6월 4일, 한-필 정상회담 시 양국 간 경제협력공동위원회(JCTEC) 설립
- 산업별 분과 구성해 정례회의 통한 신규 과제 발굴 및 공동사업 추진
- (단기) KOTRA 마닐라무역관을 KBP(Korea Business Plaza)화하여 상시협업
- (중·장기) 물리적 Shared Service Center 구축
 - * B2B 과제는 KOTRA 무역관 통해서 실시간 이행, G2G 과제는 대사관과 협업

② (향후 과제) 관계부처 수요 반영, 정부 차원 K패키지 마련해 신남방정책 추진에 활용

- KOTRA 차원의 정책 제안 자료에 양국 정부·유관기관·대기업의 구체적인 수요 추가 반영 필요 → 정부 차원의 K패키지 마련
 - *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 참여주체들의 수요 반영 필요
- 한-필리핀 정상회담·고위급 회담 시 K패키지 내용 공동성명 형태 발표
 - 양국 정부 부처 간, 기관 간 K패키지 실행력 제고를 위한 기반 조성 MOU 체결
 - * 한-필 정상회담 2018.6.4. 서울 개최 및 5개의 MOU 체결
 - ** 한-아세안 정상회의 2019.11.14. 부산 개최 예정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강지숙	과장	마닐라무역관	+63-2-8894-4084	kjs@kotra.or.kr

KOTRA자료 20-057

2020 국별 진출전략 **필리핀**

발 행 인 권평오
발 행 처 KOTRA
발 행 일 2020년 1월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 화 02) 1600-7119(대표)
홈 페이지 www.kotra.or.kr
문 의 처 경제협력총괄팀
(02-3460-7689)
I S B N 979-11-6490-203-3(95320)

Copyright © 2020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